(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645 1981년10월15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October 15,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OCT 1 9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내년부터 국민학교서 영어교육

한국, 외국어교육 강화착수

올림픽 앞두고 통역사 양성 시급

(서울13일=연합) 한국정부는 내년부터 국민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기로 결정했다. 문교부 관리들에 의하면 4~6년생들은 과외활동으로 주 1시간씩 영어를 배운다.현재본국에서는 중학교에서부터 영어를 가르친다. 국민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는 외국어는 어려서부터 배워야한다는 원칙과 실용성을 채택, 국민학교에 영어시간을 배정한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중·고교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시청각교재 구입비, 교사월급등으로 8억원(120만 달러)을 이미 배정했다. 이 예산에는 교사훈련비도 포함됐다.

전두환대통령은 지난 7월13일 "우리 영어교육은 우리가 배운 것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당시 동남아5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전두환대통령은 한국영어교육의 절름발이성을 실감, 외국어 대학,을 예고없이 방문하여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본국에서는 무역등 외국과의 교류가 잦아지자 직업적 통역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같은 필요성은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더욱 긴박해졌다.

한국유일의 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인 한국 외국어대학은 번역및 통역 대학원은 79년 개교, 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가르쳐 왔으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불충분했다.

김이배원장에 의하면 외대대학원은 지난 8월 14명의 첫 졸업생을 냈으나 신입생의 절반 이상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졸업전 퇴교했다.

통역원은 언어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학등 여러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소유해야한다.

서울 올림픽에는 약1,700명의 통역원이 필요하다.

서울의 유능한 동시통역원은 6시간 근무에 약25만원(미화 370달러)을 받을 수 있다.

◇1등상을 탄 4살 이연정양 토론토태생이다.

석남일군 최고상 받아

4살 이연정양은 1등상

—우리말 잘하기및 웅변대회—

◇ 150여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벌어진 우리말 잘하기대회 사회를 맡은 이가 이인용씨다.

토론토소재 한카 청소년 문화협회(회장 이안용)한 인라이온즈클럽(회장 윤여경)공동주최의 제1회 캐나다한국인청소년 우리말 잘하기 대회겸 웅변대회가지난10일 하오7~9시30분, 토론토한인회관 강당에서, 150여명의 교민및어린이가 모인 가운데 열렸다.

「우리말 잘하기 대회」는 수년전 우리말 보존위원회(회장 신강용)가 2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으나 웅변대회는 겸하지 않았었다.

이인용 회장 사회로열린 이날 대회는 국민의례에이어 라이온즈클럽측 이창복씨의 개회사, 박종선영사의 축사와 심사위원(위원장 : 이석현, 위원 : 윤여경, 오정숙, 김숙희, 송순태) 소개가 있은뒤 유치원 국민학생들의「우리말 잘하기」부터 시작 했다.

4살 꼬마부터 12살 까지의 어린이 19명이 겨룬 우리말 잘하기는「한국」, 「한국말」,「우리엄마」등의 테마를 가지고 열심히 발표하였다.

어떤 어린이는 외운 줄거리를 도중에 잊어버려, 엄마쪽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깨무는가 하면, 처음부터 원고를 들고나와 낭독하는 어린이도 있었다.

대체로 우리말을 또렷이 잘하였고, 내용도 좋았으나 제스츄어가 없은것이 흠이었다.

"여러 아버지 어머니 내말이 잘했으면 손뼉 쳐주셔요"하고 선의의 강요를 하여 폭소와 박수세례를 받은 꼬마들이도 있었다.

특히 네번째 출전한 최연소 4살의 이연정양은 캐나다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또렷한 우리말로「한국말」주제로 내용과 발음 표현력도 좋았고, 청중의 반응을 크게일으켜 언니 오빠벌되는 큰 애들을 물리치고 당당 1등을 차지했다.

이어 거행된 웅변대회에는 중, 고등학생 4명이 출전, 주로「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맨먼저 나온 정두현군(11살 한맘 한글학교 중학생반)은 말끝마다 높여 부자연스런점이 지적됐고, 송하정군은 원고를 들고나와 낭독한 것에 그쳐 웅변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김남희양(12살 7학년)은 테마도 내용도 좋았으나 제스츄어가 소극적이어서 공감을 일으키는데 약했다.

번햄골프 고교생인 석남일군은 뛰어나게 본격적웅변을하여 청중을 압도했다. 억양있는 말투와 침착하고 설득력있는 태도, 표현력도 우수하여 전체 최고상에손색이 없었다.

각 연사들의 발표가끝나 심사위원회가 종합심사겸 채점검토를 할동안 이창복씨가 마이크를 인계받아구경온 어린이들과 개별대화를 나누었다.

샛별한글학교생 6살 김세현 어린이는"어디서 왔어요?"하는 물음에 대해 "여기서 왔어요"라고 대답, 웃음을 자아냈으며, 박지현어린이는"어디 살아요?"라는 질문에"다섯살이에요"하고 동문서답 하기도….

이 시간 개인인터뷰에응한 20여명 어린이에게는기념메달이 주어졌다.

이날 두 행사의 심사는 (1)테마, (2)내용(줄거리), (3)표현력(언어, 제스츄어), (4)반응의 네가지 면에서 평가, 100점 만점제로 채점했다.

입상자 발표에앞서 이석현심사위원장은 출전자들의 우리말 사용능력과 똑똑한 발음을 칭찬하고, 원고를 들고나와 낭독하는것과, 글 읽듯이 암송하는 태도및 제스츄어가 거의 없은점을 고치도록 지적했다. 또한 어른스런 말투나 어른용 용어를 쓰는것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런 점도있다고 지적했다.

모국 문교부장관 상장차지 전체 최고상은 웅변부의 석남일군에게로 돌아갔다. 석군은 한국에서도 웅변을 해왔으며, 이날 부상및 참가메달을 받았다.

〈입 상 자〉

◇전체최고상 : 석남일 (웅변부)
◇우리말 잘하기부(상장·부상·기념메달)
1등 : 이연정(4살)
2등 : 이길원(6살)
3등 : 박지영(12살)
장려상 : 정승현(11살)
〃 : 김은희(8살)
◇웅변부 :
1등 : 정두현
2등 : 김남희
장려상 : 송하정

한국 원폭피해자 구제

일본, 피해 38년만에야 손써

(도꾜14일=연합) 일본 나가사키시는 한국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증가할 것이라고 1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나가사키의 정책은 히토시·모토시아 나가사키시장이 지난9월 방한시 천명기 보사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동지는 말했다.

나가사키는 83년 원폭피해자를 위한 나가사키시립병원이 문을 열면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도 입원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 있는 피해자는 9천명에 이른다. 이들은 45년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탄이 터졌을때 피해를 당한 한국인중 현재 생존자들이다.

이들 도시는 이제까지 한국인 피해자들을 외면, 아무런 의료혜택을 주지 않았으나 피해 35년만인 작년 히로시마시가 매년 겨우 10명씩의 한국인 피해자들을 초청, 입원 시키겠다고 발표한 후부터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도 의료혜택의 길이 열렸다.

피임약에 관세면제

본국,311개품목 세율인하

(서울10일=연합)한국정부는 내년부터 340개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관세법에 적용되는 총2,209개 품목중 311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내려가고, 29개 품목은 올라간다.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반도체등 11개 품목의 세율은 현 40~30%에서 10%로 내려가고, 피임약등 4개 품목의 세율은 현 40%에서 완전철폐된다.

외국산 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150%에서 100%로 내려가나, 양주, 고급승용차및 사치품들에 대해선 최고관세인 150%를 계속 적용한다.

원당의 관세율은 42.6%로 올라 현재 킬로그램당 54원에서 77원, 1분짜리비데오필름은 330원에서 4백원이 된다.

수출상품 생산을 위한 주요 원 재 수입관세율은수출증 위해 현 40%~60%에서 30~40%로 떨어진다.

이민법 개정추진

불법체류자 사면등

레건정부는 새이민법 개정을 위해 금년말 까지 불법체류자 사면안과 고용주제재안을 우선적으로 의회에서 토의를 끝내고 내년봄까지는 통과되도록 대 의회활동을 펴고 있다.

2일 상원법사위의 고용주제재안 심의에 참석한 연방이민국 조정관인 랄프·토마스박사는「의회에서 이민법안 토의가 빨리 진행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불법체류자 사면안은 오는 29일 상원법사위 소위원회(위원장·알란심슨)에서 대체로 윤곽이 밝혀질것」으로 전망했다.

토마스 박사는「상원토의가 끝난후 11월중에는 하원에서도 대체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대의회관계를 토비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문제에 언급한 토마스박사는「현재 레건정부의 제안은 밀입국자나 비자만료된 사람을 모두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1980년 1월1일 이전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비자를 받았을 당시 허위사실을 기재했든자 다른 이민법을 위반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비자기한을 지난 불법체류자 가운데에는 학생신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사면이 법으로 통과된후 법적신분을 부여키 위해 정부는 전국각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하여 해당자들의 문의에 응하여 이민국신청사항을 도와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토마스 박사는 덧 붙였다.

모든 불법체류자로서 해당자는 법혜택을 받기 위해「자신이 미국에 장기간 체류했다는 증빙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증빙서류도 각지역에 설치될 상담소에서 미리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옥행 강도 2배로

LA카운티, 반년간

(LA지사=연착)

케네스·한 LA카운티수퍼바이저는 올상반기동안「범죄자는 감옥행」법안의 효과로 작년에 비해 두배이상의 강도가 감옥으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지난1월부터 6월까지 LA카운티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강도중 57.8퍼센트가 투옥되었으며 이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퍼센트 정도가 증가했다.

1979년에 처음으로 이법안을 제창한 케네스·한수퍼바이저는 올하반기동안 더 많은 강도나 절도범이 감옥으로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404 BLOOR ST.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이화여대 동창회
요리강습및 년말파티

이화여대 동창여러분!
금번 본대학 동창회에서는 회원친목을 위한 요리강습및 년말파티 이화의 밤을 갖고자 하오니 부부동반 하셔서 부디 참석바랍니다.

요 리 강 습
일 시 : 81. 10. 31(토) 오후2시
장 소 : 1409 Goldmar Cres. Missi. 624-5817
요리종류 : 중국요리 몇가지

이화의 밤(년말파티)
일 시 : 81. 11. 28(토) 오후6 : 30~오전1 : 00
장 소 : Royal York Hotel 2층 Tudor Room

※특히 주소록을 발간할 예정이니 주소변경이 있으신 회원이나, 신입회원은 꼭 연락을 바랍니다.
연 락 처 : 536-4250 MRS. LEE
698-3778 MRS. 윤
292-6430 MRS.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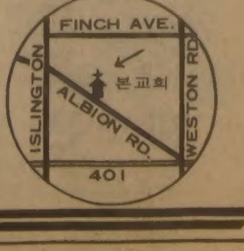
이화여대 토론토지구 동창회장
이 복 희

창립 3주년 기념예배및
조이식목사 환영예배

금번 본교회에서는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새로 부임하신 조이식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포 여러분과 뜨거운 정을 나누고, 주안의 형제자매들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자 초대하오니 부디 오셔서 흐뭇한 시간을 함께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10월18일 하오4시
장 소 : 본교회(약도참조, 한국식품 서부지점 옆)
교 우 일 동 드림

순복음카나다교회
FULL GOSPEL CANADA CHURCH
1030 Albion Rd., Rexdale, Ont. M9V 1A7
교회 : (416) 743-4813, 목사관 : (416) 745-3884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5 5 W

전국규모 태권도대회

30개부문 2백여명 참가

한인캐나다태권도협회(회장 정기태)주최 제4회 캐네디안태권도챔피온쉽이 10일하오7시 3백여명의 관중과 2백여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요크대학 체육관에서 열렸다.

메인·이벤트인 각 체급 결승에 앞서 진행된 대회식은 김정훈(Knox 신학교 재학)씨의 사회로 캐나다국가, 애국가합창에 이어정기태 회장의 개회사, 경기규칙설명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정오부터는 총30개 부문에서 2백여명의 선수들이 예선전을 벌였고, 하오 7시부터는 본선 결승전만 진행됐다.

미니·피위(Mini Pee Wee)부터 성인유단자시합에 이르기까지 7개 부문에서 선수들은 챔피온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해 선전분투했다.

이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유단자급, 미들, 헤비급 결승전, 이미 여러대회에서우승했던 디노·헤닝스가 댄·팬척을 물리쳐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블루 블랙벨트) 챔피온 테사·마카노 (박종수도장)-남자 못지않게훌륭한 무술을 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경기 중간마다 있은 사범들의 사범은 관중들을매료시켰다.

정기태 사범의 호신술시범에이어 정용수 사범과문하생들의 격파시범, 대련시범, 마지막으로 김형철사범의「형」시범이 있었다.

2시간 30분간에 걸쳐 진행된 결승전 순서는 공로사범표창과 선수수상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태권사범들의 조직체인 한인캐나다태권도협회는도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범에게도 회원자격을 주고있다.

한인캐나다태권도협회는 서울에 본부를둔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김운룡) 산하단체로 캐나다에 본부를둔 국제태권도연맹(총재 최홍희)과는 별개의 단체다.

태권도협회는 국제태권도연맹 소속이었던 4명의 사범을 회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갖췄다.

경기가 끝나고 모인 간담회에서 동협회는 도장소유 사범및 캐네디안도 회원으로 가진 캐나다태권도협회와의 통합, 개인사범주최 태권도시합 지양등을논의했다.

현재 한인태권도협회에 가입된 도장은 전국에걸쳐 27개에 이른다.

결승전적은 다음과같다.

유단자급(블랙벨트)

남자타이틀 헤비급.

1위 : 김호진
2위 : 최존
3위 : 로빈·고빈

미들·헤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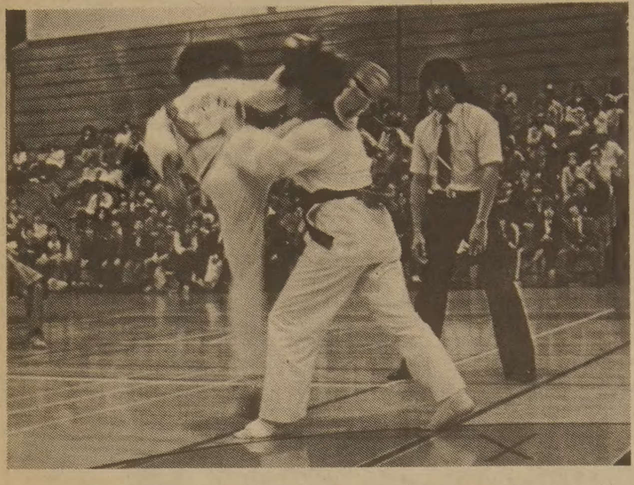
1위 : 디노·헤닝스
2위 : 댄·팬척
3위 : 아라미스·마리어스

헤비급

1위 : 비토·레자
2위 : 피트로·지글리오티
3위 : 그렌·사뮤엘

여자(블랙·블루)

1위 : 테사·마카노
2위 : 바바라·고틴
3위 : 케트린·매칸



◇여자부 블랙-블루 결승전에서 챔피온이 된 테사·마카노(왼쪽)가 옆차기로 고틴을 공격하고있다. 심판은 켄·정사범

연합교단 트루도 비난

"방한시 인권문제 외면"

"트루도 수상은 한국에서 캔두원자로를 파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를 제기했어야 마땅했다"고 연합교회 로이스·윌슨 총회장이 주장했다.

최근 한국방문에서 돌아온 윌슨 총회장은 트루도수상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수상의 방한은 수백만의 한국인을 깊은 슬픔과 많은 실망에 빠지게 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연합교회 자매교 한인한국장로교 총회에 참석했던 윌슨 총회장은 "많은 한국인들은 트루도가한국서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를 바랐다"면서"왜 수상은 인권침해 사실에 도전하지 않았나"고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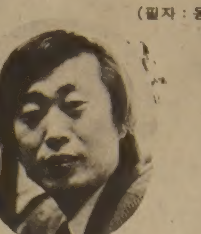
여목사인 윌슨 총회장은 물론 북한이 한국보다 더 비민주적 이지만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길은 자유인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길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는 서기 2000년까지 42개의 원자로를 도입, 발전소를 세우려 하는데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반대하면서도 아무말도 안한다고 윌슨여사는 덧붙였다.

감동어린 순간

— 초대작가전을 마치고

(필자 : 동양화가, 동덕여대 교수) 이 양 원



◇이양원 씨

와이즈맨크럽 초청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초청전시회에 참가키 위해 이곳 토론토에서 많은것을 보았고, 고귀한것을 얻고 돌아갈수있어 발길이 가볍다.

여러분의 저녁초대로 교민의 역사에비해 생활의안정을 볼수있어 흐뭇하기도 했지만 이런정도의 규모의 전시회가 처음이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결과 또한 기대 이상이었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의 이런 기획을할수있었던 용기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전시중 너무나감동적이었던 순간을 혼자마음에 담고 가기에는 아쉬움이 있어 몇자 적어본다.

와이즈맨 회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이곳에서 사업에 성공한 유지들의 성원을 기대했었는데, 오히려뜻밖에 기대하지 않았던 분들의 성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시장에 이곳에온지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황철수라는 분이 서울서 내 작품을 어느 화랑에서보고 사가지고 오려도 형편이여의치 못해 그냥 왔다며, 작품을 사지는 못하더라도초대해 점심이라도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집을 방문할수 있었다. 토론토에서 제일싼 아파트라며 응접실에 가구도 한점없이소파와 티 테이블이 있을 뿐이었다.

◇승무(이양원 작) 65cm×125cm

신문광고에 이곳에 작품전시회가 있고, 작가도 참가한다는 광고를 화장실벽면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놓고 있는것에 놀라지않을수 없었고, 벽면에는 한국의 저명한 작가의 작품이 몇점 보여 다시 놀라지않을수 없었다.

어쩌된 작품이냐고 물으니 이민올때 작품만을 몇점 들고왔다고 하며, 나는 그림을 좋아하지만 부인은 간호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역시 그림을 좋아한다며 신문에 광고가 나기 바로전에 일년만에 자동차를 현금으로 장만하는 바람에 작품을 살수없어 아쉬움을 이야기 하는것이아닌가!

김치찌개, 김과 소박한차림의 꾸밈없는 식사를 나누고, 전시회 개관 2시에 맞춰 전시장까지새로 장만한 차로 나를 데려다주는 성의도 베풀어 주었다.

전시장에서 아이 둘과부인, 그리고 황선생 기념촬영을 하고, 작품앞에서 부인과 한참을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지금 저축되어있는 전 재산이 750달러 정도라며 500달러에 해당하는 작품을 사기로 결정을 하는것이 아닌가!

나만이 아니라 와이즈맨 회장님도 그분의 작품에대한 관심도와 돈이있는 분들의 몇천달러 이상의 고귀한 마음에 감탄을 금할길이 없었다. 부인도 작품을 결정하고 흐뭇해 하는 모습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한국정부 교통현대화 이루기로

〈서울-UPI〉 정부는 교통관계의 혁신을 가져 현대화를 위해 총1백46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획에는 서울과 대전간 1백60킬로미터의「고속전철」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이「고속전철」은 1986년 부터 1989년까지 공사기간을 잡고 있는데 제1차 연도인 1986년에 총1억5천4백만달러가 소요된다.

이「고속전철」은서울의 지하철과도 연결되고 김포국제공항과도 순환토록 설계됐다.

요트도 즐길수 있고 유적지도 많어

태평양 연안의 온화한 지방

브리티쉬 콜럼비아 편

브리티쉬·콜럼비아는 캐나다 10개주 중에서 가장 조아한 아름다움을 지닌지방이다. 해안을 끼고 있고 기후가 온화, 뱅쿠버나 빅토리아같은 곳에서는 가을을 실감하기 어렵다. 일년내내 골프를 칠수있어 골프애호가들의 천국이다.

따라서 가을여행자들 이 태평양 해안을 여행할때기후에대한 걱정을 특별히하지 않아도 좋다. 단 어디를 가든지 레인코우트는 가져가야 한다. 여행자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것 빼놓고는 가을에도 여름과 같이 모든것을 즐길수 있다.

가을여행자들은 할인요금으로 뱅쿠버에서 프린스·루퍼트에 이르는 노르웨이 버금가는 피요르드협곡(빙하기에 얼음에의해 깎인 U자모양의 계곡)를 유람선을 타고 즐길수 있다.

여름인파가 사라지면서 카페리의 운항횟수는 줄어드나 B·C·해변과 아름다운 주변섬들사이를 도는좀더큰 유람선은 일년내내쉬지않고 관광객들을 위하여 서비스한다.

빅토리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빼놓고 갈 수 없는 것중 하나는「버차트· 가든스」(Butchart Gardens)이다 서부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화원으로 계절마다 특색있게 가꾸어진 꽃들이 일년내내 만발한다.

뱅쿠버에서 요트타기를 즐길수도 있다. 약간의 바람과 햇볕만 있으면 1월중에라도 요트를 즐길수있다. 하물며 10월이야…….

자연의 정기를 마시고싶은 여행객은 뱅쿠버의「스탠리·파」에 가야 할것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이고 거대한 전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50마일의 도로와 오솔길로 수놓은 스탠리·팍은 제1급의 동물원과 식인고래가 공연하는 수족관으로도 유명하다.

뱅쿠버에는 북미에서 샌프란시스코 다음 2 번째로 큰 차이나 타운이 있다. 이곳에서 식사와 쇼핑을 즐길수 있다.

뱅쿠버에는 한창 지하상가가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있어 전천후 쇼핑을 즐길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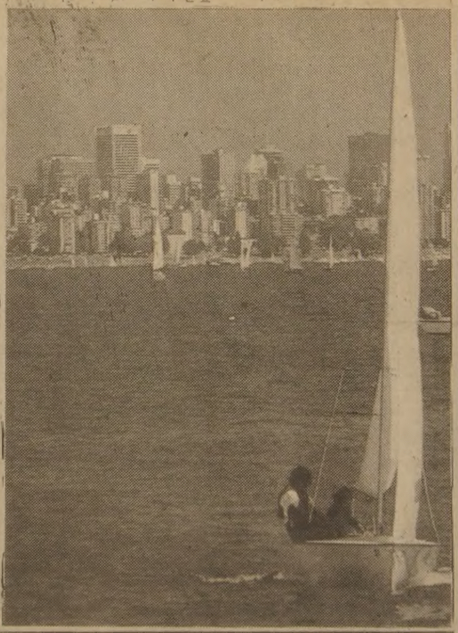
이곳에는 또 해양박물관(Maritime Museum)과 같은 여러 일급박물관들이있다. 해양박물관에는 대서양의 서북항로를 2번이나 개척한 범선 세인트·로크(St Roch)를 전시해 놓았다.

브리티쉬·콜럼비아 대학구내의 인류학 박물관도 중요구경거리의 하나로 세계각곳에서 모은 진귀한 보석들과 아울러 브리티쉬·콜럼비아 인디안들의 유물들을 수장해 놓았다.

만약 고공 공포증이 없으면 카필라노 현수교(The Capilano Suspension Bridge)에 가보는것도 뱅쿠버 방문의 스릴을 더해줄 것이다. 카필라노강 230피트위에 가설된 전장 450피트의 이 다리는 미풍이 불어도 흔들거린다. 이 다리는 겨울 스키장소인 그라우즈산(Grouse Mountain)의길목도 된다. 이 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3974피트 까지 올라가면 뱅쿠버시내를 한눈에 내려볼수있다.

빅토리아는 고층건물 설립을 금지시켜 높은 건물들을 볼 수 없으나 수준높은 해양박물관이 있고, 세계 여러나라의 선장들이은퇴지를 빅토리아로 꼽을만큼 매력적이고 아름답고조그마한 B·C·주 수도이다.

태평양 연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싶으면 패시픽·림·내셔날·팍(Pacific Rim National Park)에 이르는 하이웨이를 타면 된다. 광활하게 뻗은 바다는 일본과 직통으로 연결된하이웨이다.



Y토요학교 버스운행 안내

〈기 간〉 제1학기 10월17일(토)~12월12일(토)
제2학기 1월 일(토)~
〈수업시간〉 매주토요일 오전10시반~오후5시
〈버스요금〉 한학기 $45, 월$20
〈모집인원〉 이스트·웨스트·노스 방면 각10명 정도 다운타운(무제한)
〈수업장소〉 Bickford Park고교(777 Bloor St. W.)및 St. Clair YMCA
〈수업과목〉 ●한글교실(무료) : 오전10시반~오후1시(유치원~8학년)
김진수·김정숙·조인숙 선생지도
●영어교실(무료) : 오전10시반~오후1시(학부모·노인)
김정지·최기순 선생
●취미교실 : 미술(문안아)·무용(김정숙)·태권도(이태우)·피아노(노경심·김영훈)·기타(권혁일)·바이올린(이진화)
●유 치 원 : (김영훈·김필숙)
〈수 업 료〉 한집서 2어린이 이상, 한 어린이가 2과목이상 등록시는 $5 할인됨, 수업료에 대해서는 문의하시기 바람.
〈문 의 처〉 코리안 YMCA(536-1166) 미스터 김

웨스톤 YMCA어린이학교(무료)

때 : 매수요 오후4시45분~7시15분
곳 : Daystrom Public School(삼복식품 뒤)
교사 : 오정숙·김정숙·최춘자·이영희
대상 : 유치원~8학년

웨스톤 영어교실

때 : 매주 월·수요 오후7시~9시
곳 : Daystrom Public School (핀치·웨스톤부근)
교사 : 최춘자·최기순·해피고 선생
대상 : 청소년·가정주부·노인, 회비 : 년$5

Canada Post / Postes Canada

거의 3년간 버티어 왔읍니다.

우리는 더이상 버틸수가 없읍니다.

당신은 약 3년전—마지막 우편요금이 인상된 때를 기준해서, 현재의 거의 모든 물가가 무척 올랐다는 것을 되 새길 필요는 없읍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면적이 두번째로 큰 나라에서 우편국 비용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상상할 수 있읍니까?

우리의 방대한 수송 장비를 유지, 운영하는 비용, 필수장비 유지비, 인건비등이 실질적으로 크게 인상됐읍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상된 비용으로 인해 좀더 나은 봉사를 하려해도 재정적 지원이 없는 지경에 우리는 봉착했읍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관성 있는 우편업무를 위해 작업관리를 개선한다.

●업무의 신임도 향상을 위해 업무결과를 조사 검토하는 제도 도입.

●우편배달부의 배달지역 확대.

●우선권 우편물, 속달우편, 전자매체우편등 특수우편업무 분야를 확대.

구체적 행동

우편성은 곧 우편공사가 됨으로서 사태에 잘 적응하고 능률적인 업체로 운영되는 자유를 갖는다. 따라서 우편공사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정부지원 기관에서 탈피한다.

그러나 어떤 업체도 경제여건을 파악, 이에 적응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현 우편요금은 우편업무를 잘 유지 시킬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때문에 우편성은 내년부터 우편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이다.

인상예정 요금 :

1종 국 내	0~30그램	30¢
1종 미국행	〃	35¢
소포 같은(동일)도시	1kg	$1.10
1종 소포(예 : 몬트리얼서, 뱅쿠버로)	〃	$3.35
속달	1종우편료+	$1.00

캐나다우편성은 신뢰할만한 우편업무를 국민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다.

우편국 수입이 지출과 부합, 납세자에게 부담주는 적자를 면하려면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캐나다우편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가 되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캐나다 우편성—미래를 위해 오늘을 수술한다.

Canada

캠프데이비드協定 遵守

무바라크埃副統領 "對아랍關係회복 생각안해"

【텔아비브9日AP=聯】무바라크부통령은 9일 이스라엘의 마아리브지와의 인터뷰에서『이집트가 합의한 캠프데이비드협정 평화조약및 관계정상화협정등 모든것이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한 정책노선에 따라 계속 수행될 것이며 이스라엘국민들이 전혀 우려할 이유가 없음을 약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맺은 중동평화협정에 합의, 對이집트관계를 단절한 아랍국가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않을것이라고 단하고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문제에 언급,『마치 사다트 대통령이 생존해 있듯이 그의 모든 견해와 전망에 뒤따를것』이라고 답했다。

【카이로9日AP=聯】이집트의 대통령승계후보자인 호스니·무바라크부통령은 9일 ▲국내의 회교정통주의 세력에 대한 정책 불변▲소련의 팽창주의반대▲對이스라엘 평화정책 추구등을 공약했다。

AFP통신과의 단독 회견에서 무바라크부통령은 또한 프랑스가 중동의 조정자역을 맡게될지도 모르며 궁극적으로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관계가 개선될 것임을 시사했다。

무바라크、베긴과 會談

카터·헤이그등 美使節과도

【카이로9日聯=外】베긴이스라엘수상은 9일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후계자로지명된 무바라크부통령과 40분간 회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지속될것임을 거듭 다짐했다。

아리엘·샤론 국방상、요세프·부르그 내상, 이츠하크·샤미르 외상을 대동한 베긴수상은 이날 사다트 대통령의 장례식 참석차 카이로공항에 도착한직후 카이로교외에있는 무바라크 부통령의관저로 직행、사다트 대통령의 서거에 조의를 표했다。

베긴수상은 사다트 대통령의 죽음이『하느님의 뜻』이라면서 슬픔을 표했다。

베긴수상은 이보다앞서 카이로공항에서『우리 모두는 사다트 대통령이 개척해놓은 평화의 길을 계속 갈것』이라고 선언했다。

【카이로9日AP=聯】알렉산더·헤이그국무장관과 지미·카터씨등 3명의 전직대통령등으로 구성된 미고위조문사절단은 9일 호스니·무바라크 대통령직승계지명자등 이집트고위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미국이 안와르·사다트 대통령사후의 이집트의 순탄한 권력이양을 전폭지원할 것을 다짐했다고 중동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한 미사절단이 무바라크부통령의 방미초청의를 담은 로널드·레이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무바라크부통령도 이를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중동통신은 이날 무바라크부통령과의 회담에는 미측에서 헤이그장관, 카터、제럴드·포드및 리처드·닉슨등 3명의 전직대통령、헨리·키신저前국무장관 및 상원의원등이 참석했다고전했다。

美、地中海艦隊 警戒태세 强化

【워싱턴9日聯=外】지중해에 배치되어있는 약30척의 美함정들은 10일의 故사다트이집트 대통령장례식을 하루앞둔 9일 만약의 사태에대비、경계태세를 일층 강화했다。

미군소식통들은 경계태세 강화에 들어간 美함정들중에는 핵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지중해동부에서 기동훈련중이던 헬리콥터적재함 스페인호 및 과달카날호등 4천명의美해병들을태운8척의병력수송함이포함되어있다고밝혔다。

사다트 國葬거행

어제、被擊장소부근 勇士무덤安葬

【카이로9日聯=AP=外】故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국장이 10일 하오6시(한국시간) 카이로교외 나스르경기장에서 삼엄한 경계속에 이집트지도층과 세계각국고위조문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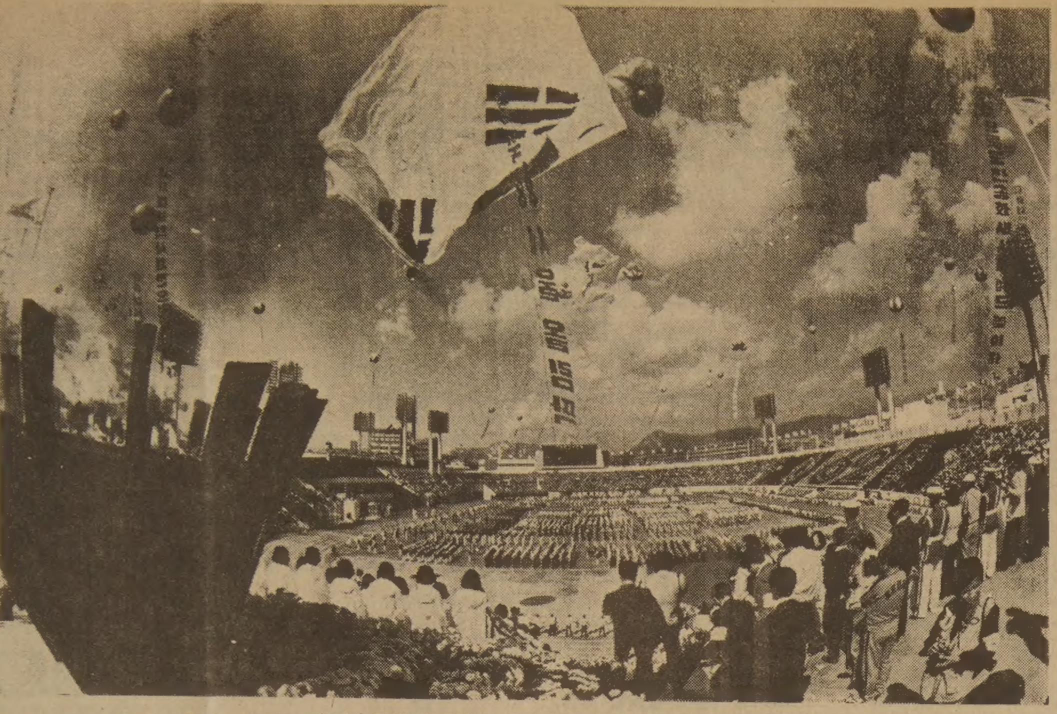
사다트 대통령의 유해는 마차에 실려 故人의 피격장소부근에있는 무명용사묘지에 가매장됐으며 현재 피격장소에 건립되고있는 피라밋형陵과 사원이 완성되는대로 이장하게된다。

영결식에 앞서 사다트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됐던 마아디육군병원경내사원에서는 미망인 지한여사등 유족들의 고별기도회가 열렸으며 이어 유해는 헬리콥터기편으로 카이로중심가에서 5㎞떨어진 나스르경기장식장에 운구됐다。

이집트국장으로 치러진 故사다트 대통령장례식은 보안상이유로 정확한 거행시간표가 최종순간까지 비밀에붙여졌으며 중무장군인들이 동원돼 삼엄한 경계를폈다。 군인들은 장례식을 하루앞둔9일 장지주변을 조사하고 도보또는 말을타고 장례행렬이 지나가기전부터 거리를 순찰했다。

장례식에는 무바라크부통령을 비롯한 이집트고위층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페르티니 이탈리아 대통령, 보두앵 벨기에국왕, 카터 포드 닉슨등 前미국대통령, 베긴 이스라엘수상, 헤이그美국무장관등 前現職서방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랍국들은 사다트대통령의 국장참석을 보이코트, 누메이리 수단 대통령, 시아드·바레 소말리아 대통령, 부아비드 모로코수상、오만부수상등만 카이로에왔다。

◇베긴·무바라크 포옹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부통령(왼쪽)이 故사다트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차 이집트에온 베긴 이스라엘 수상과 포옹하고있다。【카이로9日AP電送=聯合】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88년도 올림픽을 유치한 민족의긍지와 총화가 한데 담겨진 62회전국체전 개막식장。13개시도、以北5도, 7개해외동포 선수단이 맑은 가을하늘아래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있다。

서울올림픽 政治性없는 祭典으로

全대통령致辭 葛藤서和合、戰爭서 平和의 만남돼야

全斗煥 대통령은 10일『올림픽은 정치를초월한 평화의 祭典』이라고 전제、『오는 88년의 서울올림픽대회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政治性없는 순수한 체육의대회로 승화되어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온 인류가 우정속에 웃으며 만나는 和合의 祭典이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함께 슬기를 모아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체육대회에 참석、매스게임을 보며 박수를 보내고있는 全斗煥 대통령내외。

"세계友好증진에 우리가奉仕"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62회 전국체육대회에 참석、致辭를통해 이같이 강조하고『우리는 지나친 國家主義의 추구를엄격히 自制함으로써 우리자신부터가 이 대회를 정치적목적과 관련시키지않는다는 모범을 보여야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88년 올림픽의 서울개최는 葛藤의 만남이 和合의 만남으로, 전쟁의 만남이 평화의 만남으로 전환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며, 다시말해 우리의 地政學的조건이「전쟁의火藥庫」로부터「평화의聖域」으로 바뀌게되는 것을 뜻하는것』이라고 설명하고『서울에서의 이러한 만남이 地球가족전체의 평화, 즉 韓半島의평화는 물론이고 세계각국간의 평화와 우호를 증진하는데 공헌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다른나라 다른민족을위해 우리가 봉사할수있는 절호의기회가 왔음을 매우 소중하게생각하면서 自慢보다는 謙虛를 우리의 행동 강령으로 삼아나가야 할것』이라고 지적하고『서울을 올림픽정신이 꽃피는 진정한「평화의聖域」으로 가꾸어나갈때 서울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수도일뿐만아니라 온 인류의 사랑을받는 도시로길이칭송될것』이라고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세계의 여러 대표들과 어깨를 겨루어 올림픽개최지의 선수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땀흘려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비단 競技力 향상뿐만아니라 협동 단결하는 기풍과 정정당당한 경기정신、그리고 질서존중의 자세를 함양하는데도 倍前의 노력을 기울여「세계의 손님」을 맞이하는 훌륭한 주인으로서의 자세를 견실하게 닦아가도록 해야하겠다』고 당부했다。

62회 全國體典 개막

서울運서 13개市道등 1만5천健兒참가

제62회 전국체전이 13개시도、이북5도、7개해외동포선수단 1만5천4백여명이 참가한가운데 10일상오10시 서울운동장서 화려하게 개막되었다。

『씩씩한 새기상、펼치는새역사』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의 의지가담긴 슬로건을내건 이번 전국체전개막식은 육군광파르단의 우렁찬 개식통고에 이어 釜山직할시선수단을선두로 13개시도와 以北5도、7개해외동포선수단이 입장、국민교육헌장낭독에 이어 李奎浩문교부장관이개회를선언했다。

朴英秀서울특별시장은 환영사에서『제5공화국출범이후 첫번째로열리고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키로되었다는 민족적인 기쁨속에거행되는 체전이라는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전제하고 이번체전이 88년 서울올림픽을 원숙하게치르는 디딤돌이되도록하자고 말했다。

개회식은 李相鎬 성화최종주자가 성화를 점화한데이어 1천마리의 비둘기가 가을하늘로 날아오르자 고조되었고 曺相鎬대회장은『88년 서울올림픽 개최결정으로 한국민의 진취적기상과 국민적이상을 세계에 과시한 계기가 되었다。이시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은 화합된 국민상을 내외에 과시해야겠다』고 말했다。이어 全斗煥 대통령의 치사가 있었다。

개회식은 李文圭선수(서울·농구)의 선수대표 선서를 끝으로 각시도선수단이 퇴장했고 공개행사에 이어 낮12시부터 일반부 축구1회전경기를 스타트로 6일간의 열전에들어갔다。

社會漫評

不正뒤에는 꼭…

코스타리카 大統領 12일하오 來韓

◇카라소 大統領

코스타리카의 로드리고·카라소·오디오 대통령내외가 全斗煥 대통령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키위해 12일하오2시30분 來韓한다。

카라소 대통령은 滞韓기간중 全대통령과 頂上회담을갖고 한반도주변정세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양국간의 경제협력증진방안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카라소 대통령은 오는14일까지 우리나라에머물며 서울大에서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수여받고 13일하오에는 국회본회의에서 연설할예정이다。

카라소 대통령의 訪韓에는 케사다外相겸 宗教相내외등 공식수행원10명이 수행한다。

教育稅문제 公聽會 民正財務·文公委서

民正黨은 내주중순 국회常委활동개시에 즈음하여 財務委와 文公委에서 각각 教育稅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各界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뒤 거기서나타난 결론을 교육세案에 반영시킬방침이다。

한국·印尼合作추진 民間업계 28日회합

【자카르타9日안타라=聯】한국과 인도네시아양국민간기업인들은 오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회동、건설·목재·화학분야에서의 합작기업체설립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민간경제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고돌아온 A·바라물리·시(韓·인도네시아경제협력위원회(INCOREKOM)의 인도네시아측위원장은 지난7일 기자회견에서 또 양국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회사직원들에 대한 근로규정에도합의했다고 밝혔다。

地平線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꼽으라면、미국 사람들은 에이브러햄·링컨을 쳐든다。그의 立志傳이 미국적인 이상에 합치될뿐 아니라、남북전쟁을 싸워 미국을「再統一」한 그의 공적은 잊혀지지를 않는다。그러나 링컨미망인은 그의유품마저 팔아야할 만큼 가난한 여생을 보냈다。

▼링컨 다음 다음 다음代의 율리시즈·그랜트 대통령은 퇴임뒤 금융업에 손을 댔다가 파산했다。암에 걸린 그랜트는 병상의 餘命 1년을 회고록 집필에 바쳤다。이 회고록은 톰·소여의 작가 마크·트웨인이 출판、30만부가 팔렸다。마크·트웨인은 印稅로 수익의 70%、35만 달러를 미망인에게 지불했다。덕분에 그랜트 미망인은 링컨미망인처럼 비참하지는 않았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는 아니겠으나、미국 대통령은 현직을물러나면 으레 회고록을 쓴다。公人으로서 자기 행적을 정확하게 적어 남기자는 것이지만、그 印稅는 지금 몇백만 달러로 치솟고 있다。텔리비전 출연、초청강연의 수입도 만만치 않다。미국의 前대통령은 現職시절보다는 월등한 부자가 된다。

▼뿐이랴、미국의 前대통령은 법에 따라 終身 年金을 받는다。사무실과 경호원이 무료제공된다。鄕里에는 기념도서관이선다。건립비는 기부금으로 대지만、그뒤의 유지비는 연방정부 부담이다。입담 좋은 사람들은、멀잖아 現任 대통령을 위한 연방예산 보다、前 대통령을 위한 비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입방아를 찧는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의회에서 청문회가 하나 열렸다。百萬長者인 前 대통령의 살림걱정을 나라에서 해야만 하느냐를 따져보자는 것이다。이런 움직임을 놓고 케네디 대통령의 측근 이었던 사학자 아더·슐레진저는『너무 버릇이 없다』고 한탄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미국에 前 대통령이 없었던 기간은 2백년 역사중 60개월분이다。남북전쟁 때는 前대통령이 5명이나 있었다。슐레진저는 이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그 충고 탓은 아니겠으나、레이건 대통령은 前대통령 3명을 사다트弔問特使로 보냈다。그들의 역할、그들을 위한 비용은 여하간에、前現職 4 대통령이 한데 모인 사진(10일字 한국일보 1면)은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을 실감나게 증언하고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 하
보석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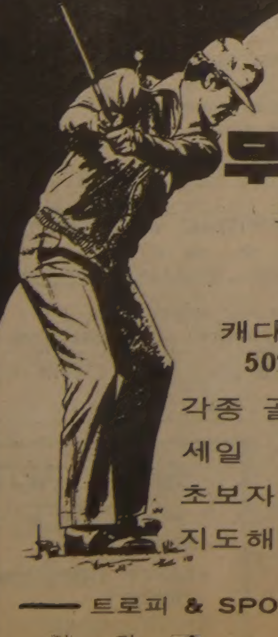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46
은 : 온스당
US9.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 금주의 새 리스팅 ~~

●도나스 샵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접 년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농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할사람을 구합니다.
☎ : 519—833—9827

디시워셔 구함 : 저녁6시~10시
시간당 $5.00, 저녁제공.
☎ : 532—5966 KAY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20~40세 풀타임 또는 파타임 여사무원 모집 :
영어 능통하고 타이핑 경험자 우대함, 일이 쉽고 자유시간 많음.
SON BROTHERS태권도장
2188 BLOOR ST. W. (AT RUNNYMADE)
☎ : 763—1155

경험있는 풀타임 가게 헬퍼구함 : 오후4시~12시, 월 천달러 보장, 단 자동차 있어야 함.
☎ : 839—1879 스카보로 거주자 환영

캐시어 구함(EVENING PART TIME)
☎ : 767—0762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
시간당 $4 이상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DRESS MAKER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윙

경험있는 스위스 자수기계 OPERATOR를 급히 구합니다. 시간당 $5이상 핀치와 웨스톤 근방
☎ 746—0054

BOEKAMT MANUFACTURING INC.
REQUIRE FULL-TIME HELPER, FOR LIGHT ASSEMBLY WORK
MON. ~FRI. 8AM~4 : 30PM
APPLICANTS MUST KNOW SOME ENGLISH
APPLY IN PERSON
910 MATHESON BLVD. MISS.

매매및 양도

이주 관계로 팝니다. 희망자 방문요
햄버거 FISH & CHIPS, 동양음식 겸한식당 :
주매상 2,000달러, 권리금 35,000달러
23 HELENE ST. N. MISSI.
☎ : 274—7010 CENTURY BURGUR

DONUTS SHOP매매
이윤 좋고 매우 전망이 좋은 곳에 위치 시간짧음
(주6일 열음, 하루 11시간 영업)
관심 있는분은 직접 내방요함.
55 KENSINGTON AVE.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성업중인 자동차 정비공장을 매매코자 합니다 :
오후6시30분이후 연락바람
☎ 533—2157. 미스터 최

매 매
성업중인 스카보로 몰안에 있는 스모크 & 기프트 샵을 급매 합니다.
주매상 : 3000~3500달러
☎ : 281—9540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그린애플뷰틱(양장점)매도
연매상 : 13만불, 리스 : 1년반+5년옵숀
렌 트 : $680+TAX & MAINTENANCE
순수익 : 연 $35000보장,
아스킹 : $35000+스탁
제인파크 프라자 ☎ : 766—6997 ASK, TANYA

콘도미늄 매매 또는 렌트 : 3베드룸, 1½목욕탕, 2car 파킹장소, 렌트 $750, 매매 $54,000, 오후2시 이후 전화요망. ☎ : 421—6016 MR. MASUDA

DRY CLEARNING PLANT FOR SALE
2 STORES GOOD INCOME
☎ : 922—2241(ROSEDALE AREA)

피아노 매매 : LESAGE피아노(아파트용 싸이즈)
액쎌런트 콘디숀
☎ : 741—5949 MRS. 민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급매 : 개인사정으로 버라이어티 스토아를 저렴한 가격으로 팔겠음..
☎ : 691—5360

성업중인 벡커 스토아 팝니다 :
1987 YONGE ST.
☎ : 484—0921

T. V. & STEREO BUSINESS FOR SALE
● HIGH PROFIT, ● 고급물품 전문메이커 취급,
TRAINING시킴, ● PREMIUM LOCATION.
● VIDEO TAPE MACHINE BUSINESS전망
● ASK. MR전, MR. 진 ☎ : 745—5555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
일본식 식당 : 85좌석, 라운지 :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rr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 집(902) 443—5789, 식당 : (902) 429—6155
라운지 : (902) 429—6955. MR. KIM

매매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 535 2804 미세스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4,900과 $8,500
2층에 살림집 있음.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 : 481—3443, 745—5485 황 순 일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DUPONT & SYMINGTON
☎ : 537—0892

광고접수 안내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이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월~금
(오전 9시 ~오후 5시 30분)
※매주 목요일 3시까지 접수된 안내광고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게재됩니다.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부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집·방세·하숙

사무실장소 렌트 : 대강 600Sq. Feet. 2층.
712 BLOOR ST. W.
☎ : 495—2172(크리스티와 블루어 앞)

구 혼

"구 혼"
냉동기술 1급 자격증 소유한 31세의 대졸남성 정숙한 여성원함.
☎ : 654—1922. 김 윤 수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헌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가게 헬퍼가 필요하세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533—2361

미 용

킴스 미용실
☎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열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추리냉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콜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미·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64 MUNSTER AVE.(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255—2111(B) 828—5001(R)

여 행 사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우여행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세계여행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울여행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일여행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활진함)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기 타

SINGER
● 전화주문 받습니다. ● 모든 종류 미싱수리, ●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 중고품 $49.95부터
CALL : MR. ARMAND OR PAUL (킴스카메라건너편)
☎ : 537—4881, 537—3841 620 BLOOR ST.W.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 535—7772

SOMÉ JEWELLERY 쏘메쎄라
●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 데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W. Tor. ☎ : 534—1085 김 춘 학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안내광고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돌개바람불다 ㉕

한두번의 가벼운 모험으로는 그가 쉽게 깨어나지 않았다. 그는 너무도 깊이 잠든 것처럼 느껴졌으며, 나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다. 그러나 입안이 바짝 마르는 듯한 초조감 때문에 다른 좋은 계교를 떠올릴 수는 없었다. 우선 그의 잠옷부터 벗겨야 한다는 생각을 얼핏 했지만 나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도 못했다.

잠시 망설인 끝에 내가 다시 시도한 행위는 역시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그의 코를 쥐는 일이었다. 이번에는 제법 오랜 시간 그렇게 했다. 뒤채이면서 그가 머리를 세게 흔들었고, 나는 그의 코를 놓쳤다. 그는 내게 등을 보이고 돌아누웠다. 옆에 나란히 누운 자세로는 이제 그의 코를 다시 쥘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상체를 비스듬히 일으켰다. 그런 다음 다시 그의 코를 찾아 쥐었고, 이번에는 그가 어렴풋이나마 잠에서 깨어나는 듯이 했다. 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지만 그는 매우 화가 나서 「왜 이래애」 하고 투덜거렸던 것이다.

비로소 나는 조금 웃음이 나왔다.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한쪽의 잠만은 탐닉하려 드는 그가 어이없기도 했고, 그런 그의 무구(無垢)함이 즐겁기도 했던 것이다.

나는 얼핏 그를 그런 반수면 상태로 계속 유지시킬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런 상태에서 그가 내 몸을 건드리게 할 수는 없을까 하고.

나는 다시, 이번에는 거의 장난스런 손길로 그의 코를 쥐었다. 그의 손이 머뭇머뭇 뻗어 올라와 파리를 잡듯이 내 손을 쳤다. 그러나 나는 얼른 피했고, 그의 손은 맥없이 허공을 그었다.

「잠좀 자자, 잠좀…」

그는 여전히 잠에 취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그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유장훈감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내가 다시 그의 코에 손을 가져갔을때 그는 또 돌아누우며 「에이, 저 사람 참,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다가 와가지고는…」하고, 이번에는 제법 명료한 말씨로 투덜거렸던 것이다. 그때 나는 발목을 잡그지 않은 까닭이 유장훈감독을 위해서라고 깨달았으며, 조금은 실망스런 느낌도 맛보았다. 도대체 그는 내가 온양까지 뒤쫓아와 잠든 그의 옆에 침범해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은것이다.

나는 조금 서글퍼져서 다시 그의 옆에 누웠다. 그리고는 조금씩 그의 가슴으로 파고 들었다. 이번에는 그의 옆에 누운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사실부터 일깨워 주겠다는 생각으로 그의 손 하나를 찾아내 가슴에 대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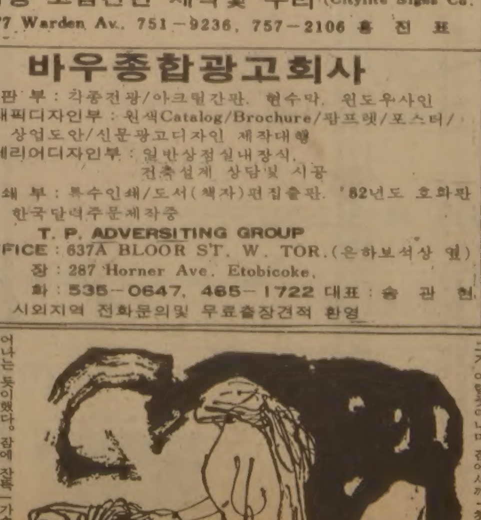
그즈음 그는 수면과 각성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내 손에 멈칫멈칫 빨려 올라온 그의 손이 내 가슴의 융기에서 살그머니 제탄을 편 것처럼 움켜져 손가락들이 푸들푸들 떨기도 했고, 그러다가 다시 잠잠히 있기도 했다. 그의 움직임을 가만히 관찰하다가 나는 마치 그의 손목을 잡고 붓글씨를 쓰듯이 그의 손으로 하여금 내 가슴을 더듬게 했다. 얼마동안 무의미하게 움직이던 그의 손이 깨어나는 듯싶었고, 조금 힘이 주어졌다. 그리고는 잠시 그렇게 가만히 있던 그가 어슴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요?」

종희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나는 잠자코 있었다. 깨어났다면 그는 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알 것이란 생각이었으며, 도리어 나는 아슴아슴 느낌도 들었다. 내 가슴에 끌어들인 그의 손은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그가 이번에는 믿어지지않는다는 목소리로 물었다.

「종희?」



趙善作 作
金光培 畫
<224>

중앙 AUTO-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회장 이형인
부회장 임철원
〃 김명정
이사장 김태진
부이사장 전운식

분주해진 협회의 일정

10월 들어서 협회의 일손이 바빠져 가고있다. 이미 정기총회공고가 발표되고,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정 부회장 입후보 등록공고가 나갔다.

그런데 이와같은 공고가 발표되기도 전에 일부회원들과 언론기관이 지대한관심의 열기를 표명해오고있다.

총회일자의 문의보다 선거일자의 문의전화가 그것을 말해주며, 신문의 특종기사가 그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앞으로의 협회 일정은우선 정기감사를 통하여 업무의 마감을 해야하며, 지난번 이사회가 결의한대로 10월말이나 11월초에 한번 더 이사회가 열려 미진한 일을 마무리짓고, 총회를대비하게 될것이다.

총회전에 연간보고 자료들을 준비하여 각 회원들에게 배부하여 보다더 진지한 총회가 되도록 돕게 될 것이며, 정 부회장 입후보들은 공고문에서 밝혀진 것과같이 등록이 완료되어야 그 상황을 공식으로 인정하게되는 것이므로 회원들은 차분한 분위기와 냉철한 이성으로 협회발전과 성장을 함께한다는 의식을 가져주기를 실무자들은 바라고 있다.

또한 연말연초를 곧 맞게될 싯점에서 협회의 숙원이 이룩될수 있는 이번 총회가 되도록 협조와 관심과 격려를 계속해 주기를 요망하고 있다.

실버운(Silverwood) 밀크 딜리버리 루우트가 바뀜

협회회원들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실버운 밀크의딜리버리 루우트가 바뀌어진것이 알려졌다. 10월 둘째 주부터 기왕의 루우트에서 로존(Rosen)데어리 디비존의 루우트로 대치시킨 것이다.

그간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배달사고들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K.B.A. 멤버들에게만 특별한 배려를 한 것이라 한다.

로존 데어리 디비존은 지난번 실버운 밀크회사가 흡수·합병한 회사로서 그 딜리버리 루우트를 이용하게 되면 회사는 유니온 멤버(노동조합원)로 구성된 트럭운전사들보다 저렴한 인건비 지출을 하게 되어 유리하며, 보다 신속한 배달 서비스와 리베이트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의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피리어드9의 리베이트가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현싯점에서 많은 회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정책변경이 과연 우리 회원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회원들은 오더·디스크나 트럭드라이버들이 조금은 달라진 것같다는 의견을 전해오기도 한다.

아뭏든 각 회원들은 이와같은 변동에 관심을 지니고 문제점들을 수시로 연락해 주기 요망한다.

문예작품 공모시상식

이미 기보한 바와 같이 오는15일(목) 하오5시 협회사무실에서「문예작품 공모」에 입선한 분들에게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게 될 것이며 가작 당선자에게는 상패가 전달된다.

관계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기를 요망하며, 이분들의 작품들은 즉시「실협뉴스」를 통해 발표될 것이다.

협회 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아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7년간 봉사해온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⑯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사슴은 마치 이상한 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바위로 된 강둑에서 솟아올라오는 것같았다. 사슴은 한줄로 물가로 재빨리 달려오는데 새끼사슴 한마리가 앞장서서 양쪽에 험하게 돋아난 바위들 사이를 재빨리 피하면서 다가왔다.

헤콰우는 주위에 있는 바위덩이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바윗돌을 붙잡아 카약을 정지시키면서 새끼사슴이 물까지 도착하는 것을 계속 감시했다. 뒤에는 수백마리의 사슴들이 강둑에 밀려있었다. 그 새끼사슴은 강가에 와서 멈추고, 뒤에 오는 떼들이 강둑에 밀려와 앞으로 내려오려고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는 동안 한가로이 사초를 뜯어 먹었다.

새끼사슴은 뒤에서 밀려오는 사슴떼를 돌아보고깜짝놀라더니 사초를 놓아두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가 흐르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런 다음 머리와 꼬리를 높이 처들고 건너편으로 용감하게 헤엄쳐 나갔다.

아직 헤콰우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사슴떼의 반쯤이 건너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다음 카약을 마치 묶어논 개를 풀어놓듯이 급류 속으로 몰아넣어 눈깜짝할 사이에 헤엄을 치는 사슴들 속으로 저어 갔다. 왼손으로 키를 잡아 가벼운 카약을 안전하게 하고, 오른손에 창을 중간쯤 잡아 높이 처들어 힘껏 내리질러 첫번째의 사슴을 찔렀다. 그가 어찌나 갑자기 나타났는지 사슴은 몇분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계속 헤엄쳤다.

그러나 그의 창이 사슴을 찌르기 시작하자 사슴은 산산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헤콰우가 강에 나타났을 때는 50여마리가 있었고, 이들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쳤다. 어떤 놈들은 강둑으로 되돌아가 바위에 발이 닿자마자 다시 물속으로 휩쓸려 위험스러운 강복판까지 떠내려 왔다. 어떤 암사슴은 몇마리의 수사슴들의 난폭한 발굽에 상한 새끼를 보호하려고 이상하게 원을 그리며 밑으로 떠내려갔다. 큰뿔을 공중에 흔들면서 수놈들도 돌아서서 죽은 새끼사슴을 따라 만쪽으로 떠내려갔다.

헤콰우는 카약을 몰고 도망가는 수놈들을 쫓았다. 그는 대여섯번만 노를 저어 사슴을 잡을 거리까지 와서 잠시동안 창으로 찔러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대신 카우보이가 소떼를 모는 것처럼 사슴떼를 몰았다. 사슴들은 그의 앞으로 전력을 다해 헤엄쳤고, 머리를 옆으로 약간 기울여 무엇이 쫓아오는지 보려고 큰눈의 흰 자위가 번쩍거렸다. 헤콰우는 만속으로 약 일마일 정도까지 이들을 몰고 들어갔다. 이제는 주위에 아무것도 그들을 보호해줄만한 것이 전혀 없었고 지친몸을 강어귀까지 다시 헤엄쳐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다. 일은 헤콰우가 바라던대로 되었다. 힘들이지 않고 그는 사슴을 모두 잡았다. 마지막 놈은 난폭하게 머리를 흔들며 피해 갔지만 번쩍이며 내닫는 창을 피할 도리는 없는 노릇이었다. 창은 짐승을 겨우 건드릴 것같이 보였지만 카약은 그 수놈이 차츰 죽어가게 내버려 두고 가버렸다. 헤콰우는 쉽고 또 숙달된 솜씨로 힘 안들이고 사슴을 잡았다. 곧 살찐 수놈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호수의 수면은 바람이 불어 맑은 물에 파장이 이는 것 외에는 전혀 움직이는 것이 없었다.

잠시후 까마귀 한마리가 하늘로부터 쏜살같이 내려와 사슴이 건너는 길목에서 죽어가는 사슴 위에 원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까마귀는 남쪽 강둑을 따라 올라오는 세개의 작은 형체를 발견하고 한 마리의 암사슴 위를 화가 나서 돌면서 여인과 소년, 그리고 개가 오는 것을 무시하려고 했다. 까마귀가 바위위에 내려앉자 소년의 고무총은 뇌조처럼 핑하고 날랐다. 유연하게 날아간 돌이 벌린 날개죽지를 맞추자 까마귀는 강속 급류로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져 버렸다.

그날저녁 벨리카리가 사슴길목에 가깝게 지어논캠프로 돌아오니 어머니 에푸트는 불앞에 쭈그리고앉아서 30마일이나 떨어진오텍·레이크에서 혼자 등에 지고온 큰솥에 불을때고있었다.

(계속)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사 광고국
533-2361

三國志 (232)

글·高羽榮·그림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인실업인협회

정부회장 입후보등록공고

회칙 제6장 2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합니다.

—아 래—

선거일 : 1981년11월27일(금요일) 오후4시
선거장소 : Holiday Inn Don Vally 1250 Eglinton Ave. East(Wynford Dr에 입구있음)
등록마감 : 1981년11월11일(수요일) 오전12시
등록금 : 각 입후보당 $1,000(은행보증수표, 일체반환없음)
후보자격 : 회칙 제2장 4조1항에 의한 정회원
등록구비서류 :
가. 이력서2부(명함판 사진1매씩)
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1부
다. 추천서 1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의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추천서)

1981년 10월 9일

한인실업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국 영

한인실업인협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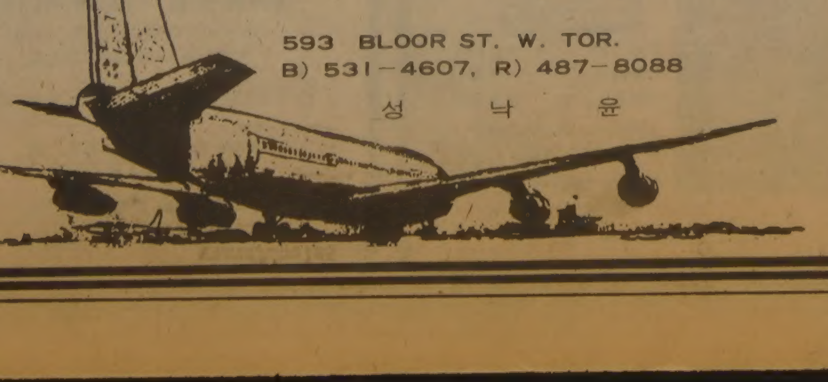
본회 회칙 제3장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981년도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아 래—

시 일 : 1981년11월27일(금요일) 하오4시
장 소 : Don Vall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 (Wynford Dr. 에 입구있음)
안 건 :
1. 과년도 사업보고및 결산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3. 이사회 보고
4. 감사보고
5. 정 부회장및 이사선출
6. 회칙개정
7. 기타안건

1981년10월9일

한인실업인협회장
이 형 인

IATA
민속촌 관광
서울행 단체 모집
출발 : 1981년11월3일, 29일
귀환 : 자 유
요금 : 특별요금
※선착순 접수중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中共의 제3차 國共合作제안
"自由中國과 事前접촉"

상임위副委長 "80年代中 통일實現"

【東京9日=聯合】중공정권의 대만통일문제교섭책임자인 廖承志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부위원장은 제3차 國共합작제안과 관련, 臺灣정부측과 사전접촉이 있었으며 80년대중에는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日本 교오도(共同)통신이 北京발로 보도했다.

廖承志는 9일 교오도통신 이누까이(犬養) 편집국장일행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과 어느정도의 사전접촉이 없었다면 그런 제안을 할수 있었는가』고 말해 양측간에 사전접촉이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廖는 대만측이 중공제안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그쪽에도 사정이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대만의 本土복귀가 80년대중에는 실현될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섭상대가 蔣經國자유중국총통임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교오도통신은 보도했다.

自由中國, 中共제안 一蹴 "侵攻은폐 속셈"

【臺北10日UPI·AFP=聯合】자유중국정부는 9일 중공의 최근 對대만평화공세는 궁극적으로 대만을 침공하기위한 연막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蔣經國총통의 본토방문초청은 『또하나의 웃음거리』라고 일축했다.

宋楚瑜자유중국정부대변인은 이날 중공에 의한 일련의 對대만평화통일 제의에 대한 공식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중공이 군사행동의 전조로서 이같은 평화공세로 나오다가 갑자기 대만을 기습 점령하지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공평화공세의 동기가 평화나 통일에 있지않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준비에 있다』고 말했다.

세송佛外相과 회담 波勞組 바웬사

【바르샤바9日UPI=聯合】폴란드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9일 노조지도자 취임이후 외국정부고위관리로서는 처음으로 클로드·셰이송 프랑스외상과 회담을 가졌다.

프랑스방문을 앞두고있는 바웬사는 이날 바르샤바주재 프랑스대사관에서 폴란드를 공식방문중인 셰이송외상과 1시간동안 만났는데 셰이송외상은 회담후 『우리는 서로간에 상당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협의내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佛·西獨 頂上會談 미사일配置등논의

【라세(프랑스)8日AFP=聯合】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과 헬무트·슈미트 西獨수상은 7~8일 이틀동안 미테랑 대통령의 향리인 프랑스서남부의 라세에서 비공식회담을 열고 특히 유럽·미사일 배치제한에 관한 새로운 美·蘇협상의 전제조건으로서 세계및 유럽의 핵군사력 균형화가 필요하다는데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봤으며 레이건 美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MX미사일및 B1폭격기 배치계획을 환영, 레이건 대통령에대한 분명한 지지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메아리

노벨상 발표시리즈가 시작 되었다. 올해 의학상은 작년처럼 3명이 공동으로 수상하게 되었고 또 미국에 돌아갔다. 미국은 이부문에서 「8連霸」를 이룩한 셈이다.

올림픽 금메달 경쟁과 마찬가지로 노벨상의 선두는 단연 미국이 지켜가고 있다.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이래 작년까지 수상자수는 4백91명. 이중 1백56명의 미국인들이 영예를 차지했다. 그다음이 영국, 독일의 순서다.

부문별로 보면 미국이 의학, 물리, 평화, 경제상에서 앞서고 독일은 화학상, 문학부문수상자는 프랑스가 제일 많다.

공동수상 가운데 흥미있는것은 「父子」가 함께 받은 일이다. 1915년 물리학상은 영국의 윌리엄·헨리·브래그와 그의 아들인 윌리엄·로렌스·브래그가 나란히 받았다. 아들 브래그교수는 수상 당시의 나이가 겨우 25살이었다. 그는 사상 최연소수상자로 꼽히기도 한다.

노벨상은 세계의 지성이 동경하는 최고권위의 명예다. 수상자 본인만 아니라 나라의 영광으로 받아들여 진다. 하늘의 별따기 같은 이 영예를 한번도 아니고 두차례나 안아간 사람도 몇명 있다. 너무나 잘알려진 퀴리부인도 그 한사람이다. 1903년 남편과 같이 물리학상을 받았고 1911년엔 홀로 화학상을 수상한 위업을 세웠다.

우리는 노벨상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인도의 한 빈민굴에서 봉사하는 무명의 테레사수녀를 세계의 인물로 발굴해 낸것이 평화상이다. 평화상 수상자엔 액운도 따른다. 킹목사가 흉탄에 쓰러져갔고 며칠전 사다트대통령은 암살당했다. 하마숄드는 비행기사고로 비명에 갔다. 올 수상후보엔 폴란드자유노조의 지도자 바웬사가 떠올라 다시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문학상은 유별나게 口舌數에 오르내린다. 문호 톨스토이와 조이스나 카프카가 빠졌다고 비난이 대단하다. 최근문학상은 제3세계 작가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운영위원회 당국은 『저개발국가에서 여러가지 독자적과 특수한 환경아래 쓰여진 작품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한다』고 강조하고있다.

문학상운영위원회의 요구로 금년엔 우리나라 원로작가의 한 작품이 자료로 제출되었다. 「노벨상의 눈」이 언제 한국에 초점이 맞춰질지 궁금하다.

노벨賞 시리즈

가다피, 레이건暗殺지령
일단의 美 그린베레出身 요원에

美NBC TV 보도

【뉴욕10日UPI=聯合】리비아국가원수 무아마르·가다피는 일단의 미그린베레출신 요원들에게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내렸으며 이같은 이유때문에 레이건대통령은 장례식에 참석하지않기로 했다고 미NBC·TV가 9일밤 보도했다.

NBC·TV는 미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의 말을 인용, 가다피가 지난 8월 19일 두대의 리비아제트기가 미국전투기들에의해 격추된후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비밀경호대의 한 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보도를 『그릇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레이건 대통령 암살모의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행해지고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NBC·TV는 연방수사국(FBI)과 비밀경호대가 『그린 베레』의 본부가 있는 노드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은 특히 리비아가 레이건 대통령암살단원들을 모집, 훈련시키기위해 前『그린 베레』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보도들을 철저히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西獨人 戰後최대 平和시위 본서 30만 參加…警察배치

【본10日AP=聯合】젊은이들이 대부분인 약20만의 서독인들은 10일 본에서 미제미사일의 유럽배치에 반대하는 전후 최대의 『평화』시위를 벌인다.

소식통들은 이들 시위참가자들이 전국으로부터 3천대의 전세버스및 42편의 특별열차등을 이용해 속속 인구 30만의 본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전하고 당국도 이번 시위가 엄청난 인명및 재산피해를 낸 지난번 수개도시의 폭력사태와 같은 국면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수천명』의 경찰을 시내곳곳에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內閣改編안해 하메이니大統領

【베이루트10日UPI=聯合】호자툴레슬람·하메이니 신임 이란 대통령은 故 모하메드·알리·라자이 전임 대통령의 정책노선을 따를것이라고 밝히고 내각개편은 단행하지 않겠다고 9일 약속했다.

사다트暗殺음모 3週前탐지

장갑헬리콥터 제공

○…이집트 경호부대는 사다트가 암살되기 3주전에 암살음모사건을 적발하고 美CIA와 협의했다고 美정보소식통들은 밝혔다.

3주전의 암살음모에서 이집트경호부대는 2개조로된 20명의 음모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에 대한 심문으로 50명을 더 체포했다.

美CIA와 이집트경호부대는 이 사다트암살계획을 뿌리뽑은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그러나 6일 사다트 암살자들의 암살에 성공한결과, 이들이 3주전의 암살음모와 직접 연결돼있는것이 밝혀졌다고 美정보소식통들은 전했다.

사다트 신변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미국은 지난 수년전부터 사다트경호를 위해 특별통신장비와 2백만달러상당의 장갑헬리콥터를 제공했으며

◇사다트 未亡人 지미·카터, 제럴드·포드 前美國 대통령들이 9일 기자의 故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 저택을 방문, 슬픔에 잠겨있는 지한·사다트 여사를 위로하고있다. 【카이로 9일 AP電送=聯合】

美, 경보기등 動員 사다트신변 보호에 신경

최근 사다트가 카이로에서 수단으로 비행했을때는 리비아 전투기들의 공습에 대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美조기경보통제기를 동원했다고 美정보소식통들은 밝혔다. 【워싱턴=青淳煥특파원】

側面개방 피라미드

○…故 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의 유해가 묻힌 카이로북방의 기념비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형태로 설계된 측면이 개방된 구조물. 대통령암살장소 맞은편에 있는 이기념비는 높이 20m로 지난 75년 네차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됐다.

一代記 곧映畵化 弔問사절엔 14살어린이도

○…故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의 일대기가 곧 영화화된다고.

미국 할리우드의 TV프로듀서인 샌디·프랭크씨는 사다트 대통령일대기가 불행하게도 죽음과함께 햇빛을 보게되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영화가 결코 사다트 대통령의 불행한 서거를 이용하기위해 만들어지는것은 아니라고 강조. 【할리우드=AP】

죽음과함께 행열

○…군사행렬을 사열하던 중 돌연 회교과격분자들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안와르·사다트 대통령의 기념비는 당초 모래빛깔의 콘크리트로된 단층이었으나 개방된 형태를 취하기위해 속을 비워내고 4개의 기둥을 세웠으며 1백만달러를 들여 3개월동안 건립됐다. 【카이로=UPI】

美지지가 죽음촉진

○…인디라·간디 인도수상은 9일 故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전폭적 지지가 그의 죽음을 촉진시켰다고 주장했다.

防彈조끼 着用거부

○…故 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생전에 『사내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방탄조끼착용을 거부했었다고. 【마닐라=聯AP】

언젠가는 運命의날

○…故안와르·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자신에게 언젠가는 운명의 날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카이로=UPI】

埃, 사다트暗殺 全貌발표

【카이로9日AP=聯合】이집트당국은 8일 처음으로 故 안와르·사다트 대통령을 살해한 범인 4명의 이름을 공개, 범인중 1명은 이집트군 중위이며 3명은 군복으로 위장한 민간인으로 회교근본주의 서클의 일원이라고 밝혔다.

주범陸軍中尉、狙擊犯3명 軍服입혀 퍼레이드隊列에
士兵외출시킨후 交替 運轉兵위협 트럭돌려

올 노벨醫學賞 3명에
美스페리·加태생·허블·스웨덴 비셀博士

【스톡홀름9日AP·UPI=聯合】1981년도 노벨의학상은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의 로버트·스페리박사(68)와 캐나다태생의 하버드대학교수 데이비드·허블박사(55)및 스웨덴의 토르스텐·N·비셀박사(57)등 3人에게 공동수여되었다.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는 이날 81년도 노벨의학상이 『大腦半球의 기능적특성』에 관한 새로운 발견을 이룩한 스페리교수와 『시각으로부터 정보가 뇌에 전달되는 방법』을 알아낸 허블교수및 비셀박사에게 공동수여되었다고 밝혔다.

카롤린스카연구소는 노벨상금1백만크로나(미화 18만달러)의 절반이 스페리박사에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허블박사와 비셀박사에게 나뉘어 수여된다고 말했다.

카롤린스카연구소는 이들 3명의 수상자가 외부세계의 정보가 두뇌에 도달하는 비밀을 명쾌히 밝혀낸 공로로 수상했다고 말하고 특히 스페리박사는 『두뇌반구가 갖고있는 비밀』을 캐내는데 놀라운업적을 거두었으며 이들의 의학적발견은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충격메시지의 비밀암호』를 해석해내는 두뇌능력연구에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고 찬양했다.

해설 「大腦기능」수수께끼풀어 노벨醫學賞3博士
左右腦는 하는일 비중같고 視覺의 情報전달과정 밝혀

올 노벨의학상을 수상한 스페리와 허블및 비셀의 공적은 인간의 대뇌의 기능을 보다 상세히 밝힌데 있다.

대뇌는 한가운데 腦梁을 중심으로 좌·우 둘로 나눠 놓여 있는데 이들을 해부학적으로 보면 똑같다. 그러나 왼쪽과 바른쪽 뇌가 하는 일은 크게 다르다. 왼쪽뇌는 읽고 쓰고 계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바른쪽 뇌는 총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왼쪽 뇌를 바른쪽 뇌보다 중요시 하게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왼쪽과 바른쪽뇌가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일정한 기능만을 나타내는것이 아니라 서로 相補的인 기능도 갖고 있어 어느한쪽의 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것은 잘못된것임을 보여준다.

吉淋교수는 대뇌의 기능연구가 활기를 띠기시작한것은 40년대부터라고 했다. 당시 한 의사가 간질환자를 치료하며 한가운데 腦梁을 사이에두고 왼쪽과 바른쪽 뇌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알게되었다.

그후 腦梁을 중심으로 둘로조개 분리되는 이른바 분리뇌실험이 시작되었다. 스페리 박사는 60년대 이같은 분리뇌실험을 통해 대뇌의 기능을 보다 상세히밝혀, 뇌기능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큰발전을가져다주었다. 【과학부】

文化短信

사다트 追悼음악제 鄭京和양 연주절찬

【클리블랜드8日(오하이오州)AP=聯合】한국이 낳은 바이얼리니스트 鄭京和양이 최근 美國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故사다트 대통령 추도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 절찬을 받았다.

東京 우표전람회 北傀、金日成사진 "우체국장"핀잔도

【東京9日=聯合】북괴는 우표전람회에서 조차 정치선전에만 열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9일부터 東京 하루미 부두의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도꾜 국제우표전람회에 참가한 북괴는 그들의 전시실 중앙에 金日成사진을 걸어놓아 멋모르는 구경꾼들이 "주체의 우체국장인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괴는 당초 특별실을 신청했으나 외교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전시실에 북한우표공사 이름으로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람회에는 80개국으로부터 1백12만장(4백여종)이 전시돼 있으며 이가운데는 1840년에 발행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표와 1억5천만엔을 호가하는 세계 유일의 우표등 진품들이 많아 수집가를 매혹시키고있다.

한국영화 우리집안 사회부문 最優秀賞 콜럼비아映畵祭

【워싱턴9日=聯合】한국의 전통적 가족제도, 가정교육, 가족개념등을 다룬 영화 「우리 집안」(국립영화제작소 제작)이 제29회 콜럼버스국제영화제 사회연구부문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영화가 콜럼버스영화제에서 수상한것은 지난해 「고려자기」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집트의 사다트대통령 피격 현장. 사다트는 손든사람 밑에 누워있다. (81년10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이잘국왕장례식. (73년 3 월26일)

◇이란의 테헤란의교공화당사 폭발현장. (81년 6 월28일)

아랍世界의 政變과 暗殺
2次大戰이후 모사데크에서 사다트까지

낫세르革命이 起點…10國波及

한손에 칼, 한손에 코란. 아랍세계는 熱砂의 회교권이 거친 현대사를 겪었다.

고대 나일, 앗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으로 번성하고 동서무역의 길목으로 부산한 교역의 중심지였던 아랍세계. 그곳은 오랜시간 험난한 곳으로 내버려진 땅이었다.

그땅은 또한 최근세까지 서구식민주의의 희생물이 되어왔다. 2차대전을 전후하여 아랍인들은 각기 지역과 씨족을 중심으로, 혹은 공화국 혹은 군주국으로 나라를 세우고 일으켰다. 짧은 건국과정에는 수많은 정변과 암살이 있었다.

1951년 라즈마라 이란수상의 뒤를이은 모사데크는 석유국유화와 反英운동으로 이란 민족주의 혁명을 일으킨다. 그는 팔레비국왕 군부쿠데타로 투옥되고만다. 그 팔레비도 사라진후, 오늘의 이란회교혁명공화국에도 테러와 죽음이 따랐다. 집권당수, 대통령, 수상, 검찰총장이 지난 6월 차례로 폭사당했다.

52년7월 낫세르가 주도한 이집트 7월혁명은 아랍세계의 정변에 깊은 뿌리를 내린다. 청년장교 낫세르는 「자유장교단」을 창시하고 민족주의운동으로 王制를 무너뜨린다.

1958년7월 이라크의 청년장교단은 하심왕정을 타도하고 공화국을 건설한다. 군부쿠데타는 63년과 68년에도 뒤따랐다. 51년7월에는 요르단의 압둘라국왕이 암살되었다.

사다트는 30여년간 아랍세계의 숱한 정치적변혁을 몸소 겪었다. 78년6월24일 북예멘의 대통령이 소포폭발로 폭사한다.

이번 사다트 암살은 국제정치무대에서 많은 變數로 작용한다. 이 계속되는 아랍의 앞으로도 「불확실시대」를 先導할것이 분명하다. 【李鍾九기자】

天馬塚의 神秘를 벗긴다

KBS 제1TV는 12일밤 요기획(하오7시45분) 시간에 「신라의 신비」제5편 「天馬塚」을 방영한다. 조사반은 천마총을 5분의1로 줄여 축조해보면서 돌과 흙의 운반과정, 운반인원, 축조과정등을 실증적방법으로 규명하고 1천4백여년전 신라인들의 매장관념과 고분의 분포상황등 의문점을 풀어나간다.

이번 조사에서 신라고분이 새로운 사실과 학설이 밝혀져 학계의 관심을 끌것으로 기대된다.

약1백60여基에 이르며 그중 금관이 매장된 고분은 25~30기일것으로 추정했다.

천마총의 성토량은 9천8백52㎥로서 우마차 2만5천5백18대분, 지게로는 33만1천37번을 져날라야할 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원인원이 1만9천여명이며 지금 똑같이 축조할경우 1억6천5백만원이 소요될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수있는 힘을 쌓는 기술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한편 이시간에는 『신라고분의 형태는 신분에 따라 엄정하게 규정지어져있었고 묘곽만이 시대에따라 변천되었다』는 새로운 학설(고대 崔秉鉉교수)이 발표될 예정이다. 【彦】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거 구 장
점심특별메뉴 : 버페 $2.99
12종류 샐러드 $1.29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11 : 30AM ~ 새벽2시까지
토. 일 : 2 : 00PM ~ 2 : 00AM
(금, 토, 일 — 밴드있음)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김 선 남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섬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 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CHINA ROYAL RESTAURANT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 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첫날 水泳서 韓國新 3개

崔允庭(여고자유영) 慶南大(男일반混繼泳) 千仁泰(男高平泳)

大學축구 在日동포팀、濟州大 격파

62회 全国体典

첫날경기서는 3개의 한국 신기록이 작성되어 호조의 스타트를 보였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향한 聖火가 활활 타올랐다. 27개 종목을 겨루는 제62회 전국체전은 10일하오 수영을 비롯한 14개종목 경기를 벌임으로써 열전에 들어갔다. 서울 종합운동장 수영장서 막을 올린 수영 남자일반 4백m혼계영 결승서 慶南팀(崔學秀 李宗鶴 吳昌均 姜錫仁)은 4분15초81의 한국신기록을 세워, 종전 한국기록을 1초24단축했으며 남고평영 2백m예선서 千仁泰(경북)는 2분34초68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한편 美國에서 수련을쌓고있는 崔允庭은 여고자유형 1백m예선서 1분3초76으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개회식이 끝난후 서울운동장 메인스타디움서 열린 축구대학부 1회전서 在日동포팀은 濟州大와 맞서 접전끝에 3-2로 이겨 2회전에 진출했으며 금년도 MBC대회우승팀인 大邱青丘高는 전반에서 鄭壽一 金海年 李向東등 세선수가 1골씩을 넣어 慶南의 강호 昌信工을 3-0으로 대파, 1회전 관문을 돌파했다.

야구 대학부1회전서는 釜山의 東亞大가 1회말 3重殺의 불운을 딛고 忠南의 檀國大(天安분교)에 3-2로 역전승 했다. 창단 첫해인 檀國大는 6회초 金敬昊의 2루타와 2적실로 2점을 먼저 얻었으나 7회말 2안타를 맞고 東亞에 2포볼을 허용하여 3실점, 역전패했다.

배구 남일반부1회전서 慶南의 現代重工業은 全南선발을 3-0으로 가볍게 물리쳤고 서울의 후지필름도 여일반 1회전서 全北선발과 맞서 모두 7점만 내주고 스트레이트로 이겼다. 여고부 1회전서 釜山南星女高는 仁川永化女實과대결, 1·2세트를 15-6, 15-12로 이겼으나 3세트서 9-15로 세트를잃고 4세트서15-9로 이겨 2회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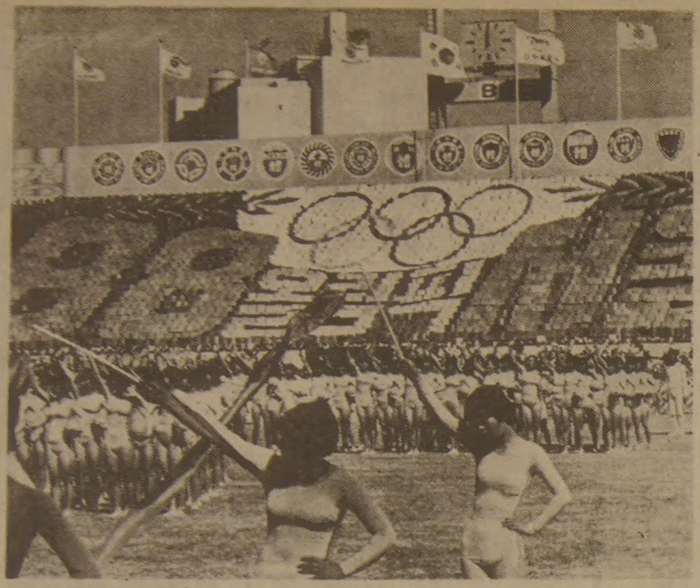
농구 여고부 1회전서 全南松源女商은 淸州女商과 연장 끝에 79-72로 신승했으며 남고부 1회전서 서울龍山高는 大邱啓聖高를 64-61로 물리쳤다.

대표선수 出戰말썽 仁昌高 몰수게임승

배구남고 1회전 서울仁昌高와 仁川仁荷附高전서는 국가대표팀 소속의 韓壯錫의 출전여부가 말썽이되어 仁昌高가 몰수게임승을 기록했다.

仁荷附高 韓壯錫은 배구협회가 뽑은 국가대표선수 15명중에 선발됐다가 지난8월 美國콜로라도 스프링스서 벌어진 제2회 세계주니어배구선수권대회도중 부상을당해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당시 배구협회는 15명의 대표선수는 전국체전에 출전할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仁荷附高서 이날 韓의 출전을 1시간반가량 고집하다가 몰수게임이된것. 韓은 현재 아랍지역에 전지훈련중인 대표선수단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지만『부상 치료를위해 소속팀으로 복귀시켜준것이며 부상이 낫는 즉시 대표팀에 합류하는만큼 이번체전에는 출전자격이없다』고 배구협회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88서울올림픽 꿈안고 京畿女高와 서울女高 학생들이 펼치는 매스·게임「번영을 향한 도약의물결」。

◇기록에 挑戰…스타트 남고평영 2백m 스타트。 각시도 선수들이 힘차게 물속으로 뛰어들고있다。

◇남일반혼계영 4백m서체전첫한국신기록을 세운 慶南팀 멤버。 왼쪽으로부터 崔學秀,李宗鶴,吳昌均,姜錫仁。

야구
▲일반부 1회전
충남단국대 천안 분교 000 000 200 — 2
부산동아대 000 000 30× — 3

수영
▲남일반혼계영4백m=①경남 4분15초81(한국신·종전4분17초05)②전남 4분25초51③충남 4분30초63 ▲동여일반=①충북 5분15초72(대회신·종전5분14초83)②충남 5분15초23③경기 5분28초01 ▲동남고=①서울 4분17초75(대회신·종전 4분24초18)②충남 4분24초69③강원 4분25초25 ▲동여고=①서울 4분48초90②충남 4분55초35③충북 4분56초61 ▲남고2백m평영예선=①千仁泰(경북)2분34초68(한국신·종전2분35초89)

복싱
▲학생 라이트 플라이급
최복호 K O 김종득 (전북)<2R55초>(경남)
김쟁훈 RSC 방승현 (부산)<3R40초>(서울)
최정환 RET 윤봉기 (경북)<1R42초>(강원)

축구
▲일반부 1회전
제주한운 1(1-0, 0-0)0 인천선발
▲고등부 대구청구 3(0-0, 3-0)0 경남창신공
▲대학부 1회전 재일동포 3(2-2, 1-0)2 제주대학
충남선발 1(1-0, 0-0)0 전남선발
경북포철 4(2-0, 2-0)0 충북성무

탁구
▲여고부1회전 전북이일 4-1 경기시온
▲남일반1회전 충북섬무 4-1 부산선발
▲여일반1회전 강원선발 4-1 전북선발
▲남대부1회전 인천전문대 4-0 경남경상전문대
▲여대부1회전 강원대 4-2 재일동포

배구
▲남일반 1회전 경남현대 3(15-4, 15-5, 15-10)0 전남선발
▲여일반 1회전 서울후지필름 3(15-2, 15-3, 15-2)0 전북선발
대구효성 3(15-9, 15-1, 15-1)0 충남대학
▲남고부 1회전 부산동성 3(15-8, 15-9, 15-9)0 충북옥천공
대구사대부 3(15-9, 15-4, 15-7)0 경남마산중앙
▲남고부 1회전 서울인창 몰수 인천인하부
▲여고부 1회전 전북근영 3(15-4, 15-5, 15-2)0 경북문경
부산남성 3(15-9, 9-15, 15-12, 15-6)1 인천영화

농구
▲여고부 1회전 전북체고 50(26-17, 24-19)36 인천인성

하키
▲여고부 1회전 경기평택 1(0-0, 1-0)0 부산성심
▲여고부 1회전 서울관악 4(4-2, 0-0)2 인천체고

▲남일반 1회전 강원묵호 3(1-0, 2-0)0 경남김해
강원대학 3(2-0, 1-0)0 서울대학
▲남일반 1회전 부산동의 1(1-0, 0-0)0 경북영남대
경기선발 1(0-0, 1-0)0 전북전주대

핸드볼
▲남고부 1회전 서울영동 30(13-10, 17-5)15 인천체고

서울지방民俗놀이 「답교놀이」 첫선 보여

◇…서울지역에서행해졌던 다리밟기(답교놀이)가 체전공개행사로는 처음선보여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받았다.

양반과 상민이 함께 즐길수있었던 유일한 놀이였던 다리밟기에는 永登浦국교 할머니·어머니와 延世大농업개발원생·弘益국교생등 4백70명이 양반·상민·집사·별감·나장·왜장녀·무동으로 분장, 13분동안 옛 민속을 재현, 선조들의 체취를 그윽히 전달했다.

이날 답교놀이에서 허리를 드러낸 왜장녀(외국에서 들어온 포주)의 춤과 꼬마들을 어깨에태우고 덩실덤실 춤을춘 무동·정자관에 도포를입고 부채를흔들어대며 점잖게 어울리는 양반들의 춤사위는 관중들을 한껏 들뜨게했다. 또한 농개타령·빠른굿거리·자존타령·선소리중의 산타령등 고유의 가락들이 계속흘러나와 성동원두를 흥겨운속에 파묻히게 했다.

또한 답교놀이장 한가운데는 무지개형태의 다리가 자리를잡아, 수백년전 조상들이 밟았던 다리형태가 어떤것인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답교놀이는 高麗말엽부터 正月대보름날 남녀노소가 햇불을 밝히고 수표교·광교·살곶이다리(현 漢陽大 城東橋옆)에서 다리를 밟으며 1년동안 무병을 기원하던 민속축제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답교놀이는 弘益국교 李鍾萬교사(40·무형문화재49호 이수자)가 종묘제례악 무형문화재 1호 金千興옹(70)과 무용가 최현씨의 고증을 받아 재현했다.

李교사는『사라져가는 우리전통을 그대로 재현함과 동시에 전통과 매스게임을 매치시켜 전통을 현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7월초에 기획, 8월22일부터 안무를 곁들여 실제연습에 들어간 답교놀이는 6세부터 60세까지의 연령층이 동원된데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개별연습을 가진뒤 다시 종합연습을 치러야했던만큼 어려움이 컸다.

답교놀이는 지난78년 광복30주년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첫선을보인이후 이번이 3번째이나, 이번처럼 대규모로 행해지기는 처음이다.【金仁奎기자】

◇체전 개막식에앞서 식전행사로 실시된 답교놀이

体육 試錄室

컴퓨터 득점표시판도

한국최초로 설치

◇…한국 스포츠사상 처음 컴퓨터로 기록을 집계하는 종합득점표시판이 등장, 스포츠과학화에 한발 다가섰다.

62회 체전을 맞아 서울시가 8천만원을 들여 서울운동장 기록실에 설치한 컴퓨터에 의한 종합득점판은 가로8m, 세로2·8m로 각시·도의 종목별 점수와 메달획득수등을 초내로 기록할뿐아니라 변경재도 5초내로 가능하다.

이 종합득점판은 오퍼레이터가 CRT터미널(스크린이 달린 타이프형태)에 자료를 넣으면 1천분의1초만에 시·도전광판에 빨간글씨로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CRT터미널옆의 프린트기에서는 전광판에 나타난 기록이 그대로 타이프되는데 이 용지로 옮겨져 한꺼번에 3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뤄지던 작업과정이 단축된다.

三星電子가 지난6월에 설계를 하고, 8월중순부터 작업에 들어가 완성한 종합득점판은 하루 10시간 사용할경우 전력소모량이 1·5kw, 5백원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許丁茂축구공기증

◆…네덜란드 프로축구 아인트호벤팀서 활약중인 전花郞포드 許丁茂는 62회 전국체전에 써달라고 아디다스축구공5개를 대한축구협회 吳完建부회장에게 전해왔다.

연식정구
▲남대부1회전 강원대 3-0 경기한양대 반월분교
▲남고부1회전 전북영상 3-0 경기농축
▲여일반1회전 충남충청은 3-0 경북선발
▲남일반1회전 대구선발 3-1 제주선발

테니스
▲여고부1회전 釜山브니엘 3-0 경기수원
▲남대부1회전 전남대 3-0 충남대

배드민턴
▲남일반1회전 경기선발 3-0 전남선발
서울선발 3-0 재일동포
▲여일반1회전 서울농협 3-0 전남선발
부산선발 3-0 충남선발
▲남고부1회전 경남진주기공 3-2 여의도
부산동고 3-1 경북김천
▲여고부1회전 전북군산 3-0 강원성화
충북충주 3-0 인천여고
서울풍문 3-0 경북김천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블론디 딘 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너무 배고파 잠이 오질 않네" "양떼를 세어보지 그러세요?" "그렇게 해봐도 효과가없어" "보이는것이라곤 양고기 뿐이였어"

김인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流星의 賦 <205>

李炳注作 李友範畵

何處 秋風至 ③

당시 크고 작은 역모가 빈번했다. 모의만 하다가 끝나는 것도 있었고, 불이 붙었다가는 쉬 꺼져버린 것도 있었고, 불발한 사이에 일망타진되는 것도 있었다. 동시에 당파의 반목(反目)으로 인해 역모 아닌것을 역모라고 뒤집어 씌워 고의로 상대당을 해치려는 모략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이 역모를 다스리는덴 여간 신중을 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서인은 서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었고 동인은 동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었다. 의금부나 포도청엔 쌍방의 무고와 조작으로 생겨난 범죄사실로서 가득차 있는 실정이었던것이다.

선조임금은 그런 미묘한 사정을 감안하여 역모의 사찰을 무관인 이영에게 맡겼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태의 진상을 캐내어 임금에게 보고하면 임금은 그 보고에 따라 조사를 하명하곤 그 조사결과가 이영의 보고와 합치되었을때 비로소 역모로서 다스리고, 그렇지 않을땐 조사관에게 엄한 벌을 내렸다.

역모의 보고가 다른 곳에서 들어왔을땐 지체없이 이영에게 하명하여 재조사를 시켜 그 진상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런만큼 이영은 역모에 관한 한 인물의 등용에 전권을 가지고있어 필요에 따라 임시로 암행어사를 임명할 수도 있었다.

이미 역모사찰의 연달(練達)이 되어있는 이영은 역모의 씨앗이 어느 곳에 누구에 의해 뿌려질 것인가, 뿌려졌는가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무고에 의한 역모를 귀신처럼 간파할 수도 있었다. 이영에 의해 역모후보자로서의 낙인을 찍히면 그자의 관로는 거기서 끝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영은 절대로 월권하는 법이 없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대소 고하를 막론하고 조정의 관원(官員)을 한손아귀에 장악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역모와 관련이 있지 않는 한, 좋아도 좋다고 하지 않았고, 좋지 않아도 좋지 않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영리한 선조는 이영의 이러한 용심(用心)을 특히 높이 평가하고 그를 신임하는바 거의 절대적이었다. 그런 까닭에 홍계남에게 주저없이

『암행어사로 등용하진 못할망정 그것에 준하는 직능을 보장해 주겠다』

고 말할수있었던 것이다.

계남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존경할뿐아니라 특별한 은애(恩愛)를 지고있는 이영의 부탁은 도저히 거절할수없는 처지였다.

『한달동안만 여유를 주옵소서』

하고 계남이 부복했다.

계남의 속셈을 알고있는 이영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나 이 한달동안에 할일을 정리하고 난 뒤로 미루면 어떠냐』

고 일렀다.

『그렇다면 형님의 뜻에 따르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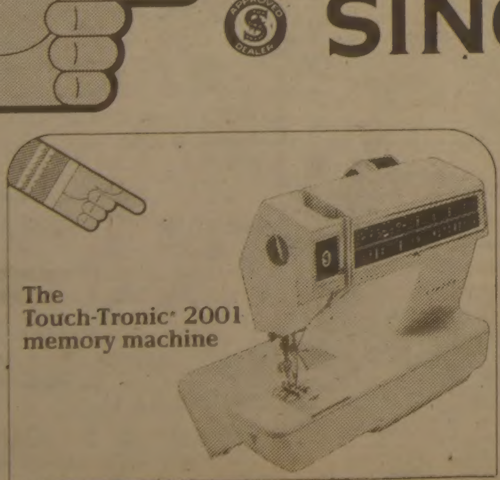
계남의 대답이 있자 이영이

『내일부터 나가지 말고 내게서 요령을 배우라. 정여립의 동정만이 아니라 그가 포회(抱懷)하고 있는 생각도 캐내어야하니 각별한 공부가 필요하다. 자네의 병조(兵曹)에서의 사임(辭任)은 내가 대신 그 뜻을 전한다. 그러나 일시 병조를 사임한다고나 하나 자네의 직급은 지금의 일로서 승진되게 되어있다』

고 한 것은 내일이라도 계남의 어머니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 놈이 발각되기만 하면 계남이 즉시 칼을 뽑아들것이기 때문이었다.

SINGER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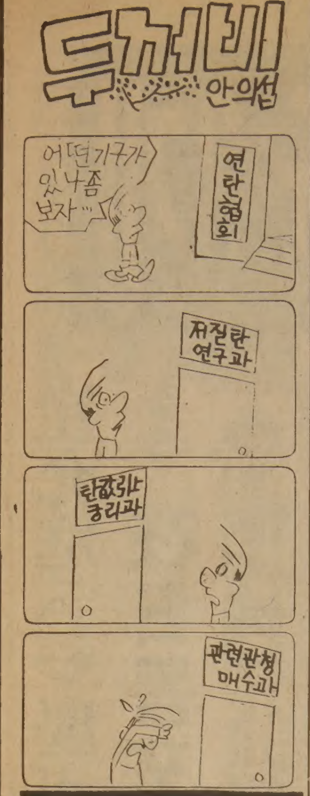
- 전화주문 받습니다.
- 모든종류 미싱수리
- 바느질을 배우세요. (틴·에이저와 초보자를 위한 강습이 있읍니다)
- 중고품 $49.95부터


The Touch-Tronic* 2001 memory machine

The Stylist* FREE ARM Stretch Stitch machine

The Fashion Mate* ZIG-ZAG machine

620 BLOOR ST. W.
(킴스카메라 건너편)
MR. ARMAND OR PAUL
537-4881, 537-3841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大入학력고사 日語선택 늘고있다

昨年보다 得點유리때문…英語과목은 줄어

대학입학 학력고사에서 영어과목을 선택하는학생들이 줄어들었고 일본어를 선택하는 숫자는 늘고있다。10일 중앙교육연수원이 집계한 대입학력고사지원상황에 따르면 81학년도에 97·4%(55만9천3백1명)의 수험생이 선택했던 영어과목이 82학년도에는 수험생중 91%(53만8천4백60명)만이 선택, 1년사이 6·4%가 떨어졌고 일본어는 지난해 1·8%인1만47명이 응시했으나 올학력고사에서는 전체수험생의 5·7%인 3만3천3백79명이 선택했다。영어、독어、불어、중국어、일본어등 5개국어중 택일하도록 돼있는 대입학력고사의 외국어과목은 수년전까지만해도 영어선택이 수험생의 99%에 이르렀고 남은1%의 수험생이 독어、불어、일본어、중국어의 순으로 선택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일본어는 1·8%가선택、영어를 제외한 나머지4개국어중 가장인기있는 과목이됐고 올해에는 그숫자가 더욱늘어 독·불·중국어선택을 모두합한 숫자보다 많아졌다。

중앙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이같은 경향에대해 일본어가 다른외국어에비해 학습과 득점에서 비교적 유리하다는인식이 있기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본다고 말하고 출제의 난이도를 조정, 타외국어선택과 득점분포에서 균형을 이뤄나가도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再修生응시 萬五千名감소

한편 중앙교육연수원은 이날 82학년도 대입학력고사지원자는 모두 59만1천7백21명으로 81학년도보다 2·8%인 1만6천5백91명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이에따라 입학인원이 19만7천2백36명인 4년제 대학의 평균경쟁률은 약3대1、전문대와 교대를포함한 전체대학(입학인원 31만6천명추정)의 경쟁률은 약1·87대1로 올해경쟁률과 같을것으로 보인다。총 지원자중 남자는 41만3천4백85명 (69·88%)、여자는 17만8천 2백36명이었고 계열별 지원자분포는인문계 38만3천7백16명(64·8%)、자연계 20만8천5백명(35·1%)으로 81학년도보다 인문계는 2만5백80명 (5·7%)이 늘었으나 자연계는 오히려 3천9백89명(1·9%)이 줄었다。전체응시자중 재학생은 38만9천90명 (65·9%) 재수생은 20만1천7백31명 (34·1%)으로 재학생은 81학년도 보다 3만2천1백81명이 증가했으나 재수생은 1만5천5백90명이 감소됐다。

◇시·도별지원상황

區分 市道	'82	'81	比較 增(△)減	備考 (%)
서울	173,144	182,375	△9,231	△5·1
釜山	48,077	49,688	△1,611	△3·2
大邱	56,319	—		직할시신설
仁川	31,063	—		직할시신설
京畿	20,584	46,217	5,430	11·7 (인천포함)
江原	23,513	22,105	1,408	6·4
忠北	20,402	18,302	2,100	11·5
忠南	44,986	42,127	2,859	6·8
全北	39,478	37,328	2,150	5·8
全南	61,924	56,242	5,682	10·1
慶北	24,106	76,273	4,152	5·4 (대구포함)
慶南	40,568	37,577	2,991	8·0
濟州	7,557	6,896	661	9·6
計	591,721	575,130	16,591	2·9

動資部석탄局長 소환訊問

檢察、低質연탄사건捜査 관련部處로 飛火

"炭鑛·製造업체 會費名目 돈거둬 값引上때마다 賂物줘 로비活動"

炭協간부진술

저질불량연탄 폭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관련부처로 확대되고 있다。서울지검특수1부는 연탄폭리업자3명을 구속한데 이어 10일하오 동력자원부 석탄국장 尹錫九씨 (47)、서울시 산업국 연료과장 崔永珍씨 (46)、석탄공사영업1과장 金光洙씨 (39) 등 관계공무원들을 소환、연탄제조업체들로부터의 금품수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캐고있다。검찰은 이에앞서 9일밤과 10일 상오에 걸쳐 석탄협회 상임이사 朴鍾吉씨 (50)、광업부장 曺應鉉씨 (44) 등을 소환신문、이들로부터 '석탄협회가 회원사인 각탄광업체와 연탄제조업체들로부터 회비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거두어 연탄값 인상때마다 관련부처에 뇌물을 주어가며 로비활동을 해왔다는 진술을 듣고 이를 확인키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石公선 "良質炭배정"싸고 收賂

검찰의 한관계자는『비밀유지를 위해 동자부에 대한 로비활동을 혼자서 전담해온 석탄협회회장 李모씨가 최근 사망한데다가 관련공무원이 명절때 떡값명목으로받은 돈외에는 금품수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있다』고 전하고『그러나 협회장부및 회원사 대표들의 진술을 토대로 회장 李씨를 통해 적어도 수백만원이 동자부석탄국에 전해진것만은 확실하므로 12일께는 관련공무원에대한 처벌여부를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로비활동명목으로 석탄협회산하 회원사들이 각출한 뇌물액수를 밝혀내기위해 관계공무원들과는 별도로 三票、三千里、東原、大成등각 연탄업체의 대표들을 다시불러 조사하고있다。

검찰은 석탄공사 관련공무원의 경우도 연탄제조업체와 석공탄공급계약을 체결할때 양질탄을 배정해 주겠다는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이부분에 대한수사도 계속하고있다。

검찰은 또 서울시 연료과 관계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정기열량검사때마다 업자들의 허위열량보고를 묵인해 주고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음도밝혀냈다。

검찰은 이밖에 이미 대표등이 구속또는 입건된 4개업체외에 2차로 수사를시작했던 大明、正原、七票、漢城、映甫연탄등 5개업체의 무급탄사용량에대한 수사결과 이들업체들도 전체원탄 사용량의 2~5%씩을 혼합사용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서울시의 고발이 있는대로 석탄수급에 관한 임시조치법위반혐의로 입건할방침이다。

"強力사건 捜査費 늘린다"

豫備費제도마련 捜査力·장비 대폭 강화

捜査출신 승진기회 넓혀 士氣높여

柳치안本部長

치안본부는 상경여대생 朴尙熙양과 尹景花노파피살 사건수사를 전후한 경찰수사체제의 미비점을 보완 히기위해 앞으로 강도살인등 강력사건수사에대비한 수사예비제도를 새로이 실시키로하고 수사력과 장비를 대폭보강하는한편 수사출신 경찰관의 경력등을 인사고과에 반영、승진기회를 넓히는등 사기를 높일방침이다。

柳興洙치안본부장은 10일 두사건의 결과를거울삼아 경찰의 수사력을 강화하기로했으며 작년한해동안 전국에서 모두 50만건의 강력사건이발생、전담 평균1만원씩의 수사비가 들었으나 충분하지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앞으로는 일정액의 예비비를확보해 두었다가 강력사건이발생하면 우선지급해 수사비로 쓰도록 하는등 충분하고 집중적인 경비의 뒷받침을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柳본부장은 또 수사계통경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사비를 늘려 내근수당을 새로지급하며『현재 수사 출신경무관이 없다』고 지적、앞으로는 수사출신에서도 경무관 승진을 시킬뜻을 비치는등 수사 경찰관에게는 승진에도 특별 배려할계획임을밝혔다。

柳본부장은 이어 경찰이용의자를『임의동행』형식으로장기간『감금』수사를편 사실에 대해서는『앞으로는 그런사례가 없어야 한다』고밝히고『그러나 우리나라 현실로는 어쩔수없는 측면이있다』는 견해를표명하면서 명백한 증거에의한 과학수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와국민이 모두 도와주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柳본부장은『미국에서는 매1분마다 1건의 강도사건、매23분마다 1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데 검거율은 그쪽 강력범이 4%、재산범16%에 그쳤다』(미연방국80년도범죄보고서)고 지적『우리나라 경찰의 강력사범해결률이 96%에 달하는것은 인력、보수、장비면에서 조건이좋은 미국경찰에비해『더많은 노력을기울인결과』인것을 사회가 인식해주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본드냄새맡은 10代3명구속

서울城東경찰서는 9일 본드냄새를 맡은 崔모 (16·공원) 金모 (15·공원) 李모군 (15·무직) 등 3명을 독물및 극물에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崔군등은 지난 7일하오4시께 동네국민학교운동회를 구경한뒤 페인트가게에서 고성능 접착제인 본드를 구입、비닐봉속에 넣은뒤 城東區馬場洞501 철길가에서 냄새를 맡았다는것。

派出所앞 횡단보도 건너다 70대老婆 버스轢死

10일 낮12시께 서울麻浦區孔德洞 孔德로터리 앞 파출소앞 횡단보도에서 白基順씨 (72·여·江東區二洞309)가 길을건너다 한성여객 소속 서울5사8787호 시내버스 (운전사·全承標·26) 에 치여 그자리서 숨졌다。

사고는 萬里洞으로가던버스가 로터리의 푸른신호를보고 그대로 달리다 횡단보도로나온 노인을 발견하지못해 일어났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건널목 버스·列車 충돌 버스 승객 8명 重輕傷

【天安=聯】10일상오8시22분께 충남天原郡聖居面石橋里 석교건널목에서 天原郡笠場面에서 天安으로가던 忠南5자2326호 시내버스(운전사 전부길·30) 가 安城發天安行 제600 보급열차 (기관사 이성재·23) 에 받혀 버스승객 洪成俊씨 (37·天原郡東面大坪里) 등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갑자기 낮아진 기온으로 유리창에 서리가 끼어 버스운전사 전씨가 우측에서 오는 열차를 미처 보지못해 일어났다。중상을입은 洪成俊씨는 天安시내 장신경외과에 입원중이며 경상자7명은귀가했다。

雙十節 70周기념식

중화민국건국70주년기념 쌍십절기념행사가 10일상오10시 서울中區明洞 한성화교국민학교 교정에서 丁懋時주한중국대사와 화교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李奉昌의사 追慕祭

李奉昌의사 제49주기 추모제가 10일상오10시 서울龍山區孝昌공원 李의사 묘소에서 李의사기념사업회원、유족、시민등 1백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엄수됐다。

소주먹기 試合중 20代 청년이숨져

9일하오4시께 金泉市甘湖洞71 대포집 (주인 姜순자·36)에서 내기소주를 마시던 金만기씨 (28·金泉市智佐洞779) 가 갑자기 토하면서 쓰러져 도립金泉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숨진 金씨는 이날 친구 文복곤씨 (26)와 소주한되먹기 내기를하다 3분의2가량을 마시고 토하며 쓰러진후 변을 당했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깊어가는가을 된서리에 영그는 호박

◇가을이 깊어간다。서리를맞아 실팍하게 영근 호박덩이들이 마지막 추수를 재촉한다。【전남 高興郡 東面에서 鄭範泰기자찍음】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 1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 : 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회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 : 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6 : 30 주일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회선	주일 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 : 00 주일저녁예배7 : 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 : 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한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시30분 중고등 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 : 00 토요오전 7 : 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옥희 전도사	주일오후 2 : 00 수요예배 7 : 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 1 00 저녁 7 : 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평신도복음선교회	선교회	예배 주일오후 2 : 00	2501 Warden Ave.	298-9031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회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er Dr. at Pape-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 : 30 일요오후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헌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3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8 : 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1 : 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 : 00 낮12 : 30	353 Sherbourne St.	922-5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2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